

#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

## — 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

김현경

#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

## - 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 현 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공동연구 최 혜 경 (경기도미술관 학예사)



## 서 문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한 국내 박물관 환경은 국민의 대표적 문화향수 공간으로 박물관을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족단위의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이 우리의 여가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박물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시설이 다수 건립됨에 따라, 박물관 환경에서의 질적 성장의 요구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질적 성장은 개별 박물관의 노력만으로 성취되는 것만이 아닌 박물관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이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연구는 박물관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내 박물관의 질적 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포용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국내 박물관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안이 적극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도출한 주요한 통찰들이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경험과 식견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신 여러 전문가 및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 연구개요 ●●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 박물관/미술관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양적성장을 통하여 국가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약 40%를 이루며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함
- 국내 박물관의 경우 국립은 물론 공사립에 이르기까지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운영의 상당한 부분이 공공지원으로 이뤄지며, 이는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 하지만 공공지원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부실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게 됨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수행의 효율성 개선 및 적실한 공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박물관 평가 및 인증 제도를 구축하여 상기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및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 수립 및 시행과 박물관의 공공적 역할 수행 개선의 직접적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규제 중심의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 및 인증에 대한 제도 도입과 함께 국내 박물관들의 공공적 역할 수행으로서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 국내 박물관의 질적 성장 노력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 박물관 정책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역할과 기능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국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포용적 박물관’ 개념 적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문화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존립과 공공지원에 대한 당위적 근거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공 박물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
-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서 박물관이 수행하고 있는 포용적 가치를 담은 ‘활동’을 대상으로 함. 박물관의 전통적 기능으로 전시, 교육, 보존(수집), 연구적 기능은 물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 기능도 함께 살펴보았음
-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의미와 개념, 포용적 박물관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와 내용을 도출하였음. 이 내용을 기초로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박물관의 포용적 박물관로서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향성 제시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함
- 이를 위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개념, 역사, 현황 등에 관한 논문, 서적, 보고서, 언론 기사 등 다각적 문헌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국외 문화정책차원의 박물관 정책 사례연구를 실행하였음
- 또한 국내 박물관 실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박물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진단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2.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포용적 가치’의 전개 양상

### 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전개 양상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전 세계적인 박물관의 양적 확장과 박물관의 기능 확대를 배경으로 확장되었음
- 이러한 양상 속에서 박물관이 사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신박물관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신박물관학은 방법론 중심의 논의만 다루었던 과거의 박물관에 비하여 새로운 박물관들은 ‘사회적 역할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이야기함
  - 신박물관학의 논의는 유물이 ‘박물관’이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발생된다는 점과 박물관이 더 이상 문화자본을 지닌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학계를 통해서 담론으로 출발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근대적 공공박물관의 개념이 일찍이 마련된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차등적으로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음. 또한 각 나라별로 사회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가 다르지만, 그 영역들이 현재에 이르러 ‘포용적 가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근대적 공공박물관의 발생이 서구의 타 국가대비 가장 늦은 반면, 태생적으로 컬렉션 중심이 아닌 ‘박물관’ 건립이 자체의 목적을 통해서 발전함. 이에 박물관이 사회적 존립 가치에 대한 고민이 일찍이 시작되었으며 ‘박물관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존립의 당위성을 찾았음
  - 프랑스의 경우 공공박물관의 초기 발생 국가로서 유서 깊은 박물관

관 전통을 지니는 반면 신박물관학 개념의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정부의 1980년대 문화민주주의 정책 추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정부주도의 문화정책 추진과 그 중심에 박물관이 문화의 매개공간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박물관 매개인력들에 대한 법제도적 준비의 노력이 있었음

-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신노동당 집권과 함께 박물관에서의 소외계층 포용정책이 추진됨. 타 국가의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를 문화로 극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박물관 역할을 통해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나.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서 ‘포용적 가치’의 확대

-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 포용적 박물관 정책은 국가적 정책으로서 의의를 넘어서 박물관이 현재의 ‘사회’ 안 어떻게 함께 발전해나고 우리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신박물관학의 논의를 현실 담론으로 이끄는 데에 기여함
- 영국에서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완충 개념으로 활용된 ‘포용적 박물관’이라는 용어가 신박물관학에서 논의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의 결합을 통하여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1990년대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문화적 다양성’이 박물관 활동의 중요한 미션으로 설정됨에 따라,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 가치정향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 ‘포용적 가치를 담은 박물관’을 21세기 박물관 비전으로 삼고 국가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음

### 3.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과 적용

#### 가. 박물관 활동에서 ‘포용적 가치’의 의미

- 해외의 박물관 환경 변화와 발전 양상에서 살펴본 ‘포용적 가치’가 박물관 환경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에 대하여 박물관의 ‘무엇이(What)’, ‘누구에게(Who)’, ‘어떻게(How)’ 전달되는 가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였음
- 박물관이 유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차원에서 박물관에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의 문제가 중요해지게 됨.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박물관이 지닌 과거 ‘유물’의 배타적 속성이 사회와 커뮤니티, 그리고 대중들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포용적 가치’를 지닌 메시지로서 재현될 필요가 있음
- 박물관의 사회적 책무는 교육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관람객 개발 차원, 박물관 접근성 확대 차원에 이르기 까지 ‘유물’을 위한 책무에서 ‘사람(방문자)’를 위한 책무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박물관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혜택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꾸준한 시도로 볼 수 있음

## 나.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과 활동

- 포용적 박물관은 컬렉션 기반 박물관의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음. 앞서 살펴본 ‘포용적 가치를 담은’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이 수행되는 박물관을 ‘포용적 박물관’으로 보아야함
-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 속에 ‘포용적 가치’가 담겨야한다는 의미로서 개념을 정의할 때,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포용하는가가 포용적 박물관의 정의를 구체화 시킬 수 있음
  - 첫째, 포용적 박물관은 다양한 관람객을 포용해야함을 전제로 함: 다양한 관람객은 기존의 ‘방문객’의 다양성이 아닌 비 방문자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그 논의를 확장시키며 그 대표적인 대상으로서 박물관 방문경험이 거의 없는 문화적 소외계층들을 들 수 있음
  - 둘째, 포용적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함: ‘역사화’된 과거의 사실은 물론 우리의 ‘기억’의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음. 즉 포용적 박물관은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문화적 기억’을 담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해야함
  - 셋째, 포용적 박물관에 대중(public)은 관람자로서 위치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음. 즉 모든 활동은 박물관-관람객의 상호 협력의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증진해나갈 수 있어야함
- 상기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포용적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을 기존의 문헌에서 논의에 기초하여 본보고서 내에서 정리한 내용 다음과 같음

〈표 1〉 포용적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내용

역할	세부 기능	활동내용
지역의 문화적 중추로서 역할수행	유물의 수집과 컬렉션의 구성	유물의 수집에 있어 유형에서 무형의 정보 수집까지 포괄할 수 있으며, 유형적 가치(미술사적 가치)는 물론 사회적 가치를 지닌 컬렉션의 구성이 가능함
	커뮤니티에 대한 확정적 수용	자식의 재발견(reconnaissance) 또는 인식전환의 장소로 나의 사회적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공동 체적 장소로 역할 수행
	근접성에 기초한 박물관 서비스의 재설정	커뮤니티를 통한 정서적 접근성 개선과 함께 박물관에 물리적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함
포용적 가치의 구현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의 가치고양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토론의 가능성은 열려있어야 하며, 사회의 시민적 활동에 기초한 박물관의 활동 구성
	사회적 포용 활동 확대	박물관을 찾지 않고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박물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 필요
	협력과 참여	일상적 공간과의 연계된 박물관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일상적 공간으로서 인식 확대
토론과 창조의 장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지식과 정보, 유물들이 우리의 현재의 삶과 연관지을 수 있는 다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함
	창조의 공간	박물관이 가진 유물과 자산을 통하여 현재적 의미의 새로운 창작과 표현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4. ‘포용적 박물관’ 적용을 위한 국내 박물관의 기능 진단

##### 가.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 국내 박물관의 대표적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박물관 정책 추진을 살펴볼 수 있음. 2008년 시행된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정책, 야간개장, 공휴일 없는 개장 등을 통하여 국민 문화향수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 및 접근성 개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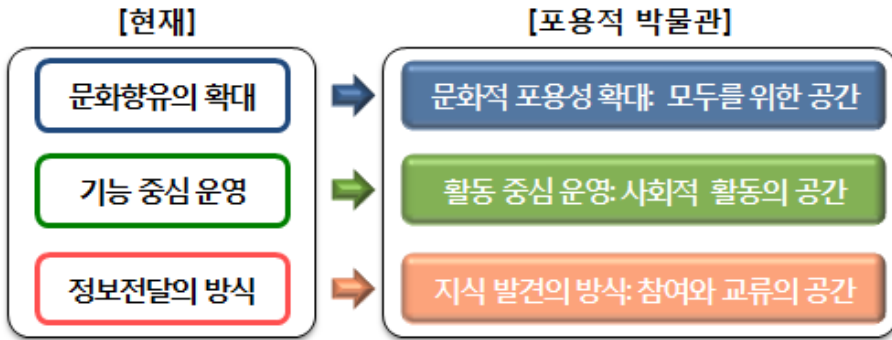
- 무료관람정책 및 개장시간 확대관련 정책사업들이 관람객의 양적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정책 사업 분석과 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
- 개별 박물관의 기능차원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능이라고 명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설정되어있지 않음. 현재 공공박물관에서 사회적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는 대다수의 기능은 ‘관람객’을 위한 기능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표적인 기능이 ‘교육’기능임
- 박물관이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장소로 인식됨에 따라 박물관을 찾는 중요한 이유로서 ‘교육 프로그램’ 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어린이 교육 이외의 다른 세계 혹은 계층에 대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움. 교육기능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적, 내용적 확대 고민이 필요함
- 문화적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프로그램들이 이뤄지고 있음
-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기적으로 이뤄지거나, 실제 수행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습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나.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개요 및 내용

-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은 현재 공공 박물관의 직제에서 ‘교육전담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관별로 그 기능과 수행의 방식이 매우 상이하여 공통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관련한 정량적 데이터를 통한 현황 검토가 아닌, 박물관과 미술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경력별 3~4명, 총 12명)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실태를 파악함

-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인식과 범주에 대한 전문가 의견
  - 박물관이 사회적 기관으로 역할을 해야한다고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육’기능에 너무 집중되어있다고 보았음
  - 특히 비영리 기관으로서 박물관 경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박물관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감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사회적 역할 수행이 ‘교육’기능으로 집중되다보니, 교육프로그램의 양적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음. 박물관이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람객에 대한 프로그램 점점 확대에 대해서 고민해야함
  - 박물관을 방문한 전체 관람객이외에 어떠한 관람객이 어떻게 방문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이뤄져 축적되어야함
-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수행 대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적 시각이 필요함. 교육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시의 형태를 띤 교육 프로그램, 교육적 함의를 담고 있는 전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획 필요
  -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 박물관이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다가갈 수 있도록 기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 5. ‘포용적 박물관’ 실현을 위한 국내 박물관 정책 방향



[그림 1] ‘포용적 박물관’ 실현을 위한 국내 박물관 정책 방향

### 가. 박물관을 통한 사회 포용적 가치 구현

- 포용적 박물관이 다루는 영역은 현재의 박물관의 모든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국내의 박물관이 전시, 교육, 연구 및 보존을 주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용적 박물관의 국내 박물관 환경 적용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되, 각각의 기능에 ‘포용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
- 다양한 관람객들에 대한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가 필요하며 박물관이 다양한 문화적 소외 계층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문화를 통한 사회적 포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이 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

### 나. 문화적 활동 중심으로서 박물관 기능 전환

- 박물관을 컬렉션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으로 이해할 때, 통합적 관리 또는 거시적 차원이 정책에 대한 방향성으로 제시될 수 있음. 문화적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의 박물관들이 새로

운 기능을 수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활동 기관’으로서 박물관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함

- 지역의 경우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중앙 차원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의 지역 박물관은 지역문화의 유형적 보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동의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문화적 활동 중추로서의 역할 수행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 참여와 교류의 공간으로서 박물관 운영

-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국내 박물관은 다양한 생각과 지식의 통로로서 지식을 학습하는 시키는 것이 아닌, 문화현상에 대한 다양한 신념, 철학 등에 관한 깊은 층위의 지식 내부의 모순이나 역설에 관한 이해까지 함양하는 공간으로 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의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 수행’의 구체적 실현과 방식에 대한 인식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이 ‘전문가’로 남는 것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소통’하고 ‘매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b>제1장 서론</b>	<b>1</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범위	11
2. 연구 방법	11
<b>제2장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포용적 가치’의 전개 양상</b>	<b>13</b>
제1절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전개 양상	15
1. 신박물관학의 대두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모색	15
2.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전개 양상	18
제2절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서 ‘포용적 가치’의 확대	29
1. 박물관을 통한 ‘사회적 포용’ 정책 추진	29
2. 문화적 다양성의 실천으로서 ‘박물관의 포용성 확대’	30
3. 박물관의 21세기 비전으로서 ‘포용적 가치를 담은 박물관’	32
<b>제3장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과 적용</b>	<b>35</b>
제1절 박물관의 활동에서 ‘포용적 가치’의 의미	37
1. 박물관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37
2. 박물관이 ‘누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40
제2절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과 활동	42
1.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적 이해	42
2. ‘포용적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	44
<b>제4장 ‘포용적 박물관’ 적용을 위한 국내 박물관의 기능 진단</b>	<b>49</b>
제1절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51
1.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박물관 정책 추진	52
2. 관람객 교육 기능의 발전과 확대	56

3. ‘문화적 복지’차원의 프로그램 제공 .....	60
제2절 국내 박물관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63
1. 조사 개요 .....	63
2. 조사 결과 .....	64
제3절 국내 박물관 사회적 역할 수행 분석 시사점 .....	79
1.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	79
2.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81
3.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83
<b>제5장 ‘포용적 박물관’ 실현을 위한 국내 박물관 정책 방향 .....</b>	<b>87</b>
제1절 박물관을 통한 사회 포용적 가치의 구현 .....	89
1. 보조적 활동이 아닌 박물관의 중심적 활동으로서 ‘사회적 기능’ 확대 .....	89
2. ‘방문객 유치’가 아닌 관람객의 ‘참여’로서 문화적 포용 정책 추진 .....	90
제2절 문화적 활동 중심으로서 박물관 기능 전환 .....	92
1.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활동’에 초점 .....	92
2. 지역문화 ‘보관’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활동 중추로서의 역할 수행 .....	93
제3절 참여와 교류의 공간으로서 박물관 운영 .....	95
1. 문화적 리터러시로서 ‘박물관 리터러시’ 확산 .....	95
2. 박물관 전문 인력의 소통 역량 확대 .....	96
<b>제6장 결론 .....</b>	<b>99</b>
<b>참고문헌 .....</b>	<b>104</b>
<b>ABSTRACT .....</b>	<b>110</b>

## 표 목차

〈표 1-1〉 박물관 관련 조사 및 제도의 대상과 목표 .....	6
〈표 1-2〉 연구 방법 추진 계획 .....	11
〈표 4-1〉 전문가의견조사 대상자 .....	63

## 그림 목차

[그림 3-1] 자신이 투영된 도시의 모습(좌), 인구통계학 지도테이블(우) .....	47
--	----





제1장 ●●

## 서론





##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가. 공공지원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부실 문제 빈발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은 2017년 기준 전국 문화기반 시설 중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1,082개로 도서관과 함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꼽힌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1993년 기준으로 박물관 1관 당 인구수가 47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2015년 기준으로 6.3만 명으로 줄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약 25년간 박물관의 양적 성장이 크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최근 박물관들의 부실 경영 문제의 문제와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문객의 수가 거의 없고 시설 건립 이후에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존립의 당위성이 흔들리는 박물관들에 대한 뉴스<sup>2)</sup>는 공공부문의 예산 낭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국내 박물관이 운영의 대부분을 공공지원에 기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는 물론 국립 박물관 역시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관람객 확대에 힘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운영이 공공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박물관에서 논의되는 ‘경영효율화’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E-나라지표 내 등록박물관/미술관 현황(2017.11.26. 접속기준)

2) 일단 짓고보자... 범람하는 ‘부실’문화(2015.08.24.), 「경남도민일보」, 경기문화재단노조 “박물관·미술관 민간위탁은 장삿속 논리”(2016.04.26.), 「뉴시스」

## 나. 박물관의 운영개선과 관리감독 차원의 제도 강화의 상관관계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비영리 기관으로서 박물관에게 ‘경영 자립도 향상’ 또는 ‘경영 효율화’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논의되는 것과는 달리,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 그 역할과 책임성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할과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박물관의 경영 효율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하여 국가 박물관·미술관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2017년 9월부터 문화기반과로 통합)는 박물관의 양적 성장에 대비하여 질적 성장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에 착안(양현미, 2013)하여 그동안 ‘진흥 정책’ 중심으로 이뤄졌던 국가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대하여 등록 의무화, 평가인증제 도입, 사전평가제 확대 등 공공지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부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박물관·미술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sup>3)</sup> 운영 부실을 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 강화가 초기단계의 박물관 건립 문제를 제외하고 개별 박물관·미술관에게 ‘어떠한’ 질적 성장과 ‘어떠한’ 운영개선이 필요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평가인증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하여 국내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관련하여 인증 및 평가제도가 질적 개선과 자체역량 강화(윤택석, 이미영, 2010; 양현미, 2013)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질적 개선과 자체역량 강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방향성의 문제이다.

3)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이라함은 박물관의 설립 목표와 연관되어있다. 박물관이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목표를 통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과 달리, 운영부실의 문제는 이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적 측면을 논의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비영리 기관으로 설정된 박물관에 있어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면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문제발견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서 실시되어 실질적 서비스 개선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운영에 대한 평가는 운영주체로서 개별 박물관에 대하여 그 상위의 운영관리자인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때 공급자로서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관리감독이 ‘박물관의 실질적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는 공공지원의 효율성 강화 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한다. 또는 평가·인증 도입에 따른 ‘운영개선’은 실제적으로 그 ‘운영 개선의 효과’가 이용자인 국민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람객 방문(또는 재방문)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우선적으로 증명해야한다.

#### 다. 국내 박물관에 대한 전 국민의 이용 기대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필요

다시 말해, 박물관의 양적 성장에 따른 공공지원이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공지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하나, 이러한 공공지원의 평가와 관리가 박물관의 역할 수행 및 이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만드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는 박물관의 이용률 하락이 박물관 운영 악화의 원인인지, 박물관 운영의 결과인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평가 및 인증제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립박물관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국립중앙박물관, 2016; 국립민속박물관, 2016;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2016) 만족도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100개 기관 방문객 1,099명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 및 서비스 평가의 결과(김연진, 2017)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전시프로그램 전반적

만족도가 85.3%, 직원 친절에 대한 만족도가 89.8%,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85.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부실운영 및 경영에 대한 근거로서 박물관 이용률 하락과 질적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질 개선과 만족도에 있어서 현재의 수준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박물관 운영개선을 위한 이용률 향상은 만족도가 높은 ‘방문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박물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非)관람객인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이 아닐까?

〈표 1-1〉 박물관 관련 조사 및 제도의 대상과 목표

구분	정책 추진의 대상과 실질적 목표
박물관 평가인증제 도입	<b>개별 박물관의</b>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개선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b>개별박물관의</b> 운영현황 파악
박물관 만족도조사	<b>박물관 방문자에 대한</b> 서비스질 개선의 근거
박물관 관람객 계층화 조사	<b>박물관 방문자에 대한</b> 운영 개선의 근거
박물관 관람객 이용 조사 (관람객통계)	<b>박물관 방문자에 대한</b> 전체 통계로 활용 (전국민 대비 비 이용자 비율 추정가능)

비슷한 논리로서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급증 현상(박소현, 2012; 김현경, 2016) 역시 박물관이 ‘누구를 위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성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박물관은 설립 초기부터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박물관의 초기 설립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기능이 전시와 연구·보존 기능의 보완적인 형태로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국공립은 물론 민간영역에서의 박물관이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교육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어린이 전문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최근

국공립 박물관 중 운영 효율성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서 ‘어린이 박물관’ 건립 확대 논의가 국가차원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이뤄짐을 알 수 있다(김연진, 2017). 이러한 상황은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박물관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향상이 이뤄지지 못해 벌어지는 상황과는 달리, 또 다른 양적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이며 정부에서 판단하는 상황과는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라. 박물관 역할 수행과 이용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

박물관이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국가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우고 예술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기능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예술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고 지원으로 운영이 이뤄지는 박물관이 기존의 유물 또는 작품의 전시와 연구·보존 기능을 전문의 영역으로 박물관 교육 기능을 어린이와 관람객 유치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박물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점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박물관은 태생적으로 ‘유물을 위한 공간’이었지만, 점차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 경영효율화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박물관의 기능은 ‘문화와 여가’ 공간으로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이 시설적인 측면(건물의 규모, 많은 공적 자금의 투여)에서 이뤄짐에 따라 이후 박물관의 경영악화와 박물관에서의 ‘관람객’은 상품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 박물관들은 경쟁적으로 관람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으며, 국내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어린이 박물관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



로 유치를 희망하고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박물관 등록, 인증 및 평가의 제도 도입의 전제가 되었던 양적 확대에 따른 운영 악화의 논리로 본다면,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국내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관람객 수에 따른 작금의 경영 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쯤해서 우리는 국내에서 박물관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총체로서 우리사회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관람객 확대는 박물관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행위이지만, 비영리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박물관은 ‘경제적 효과’가 아닌 ‘사회적 효과’에 귀 기울여야한다. 교육기능으로서 박물관에 대한 인식 확대는 이러한 ‘사회적 효과’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대상이 어린이 집중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특정 ‘대상’을 위한 공간으로서 타 어린이 시설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주요한 기능 ‘유물 또는 작품’을 통한 지식의 공유 측면에서도 한정적일 수 있다.

국외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박물관학 분야는 물론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선 상황들에 비추어봤을 때 국내에서도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국제적 고민에 비추어 국내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확대를 통한 박물관의 사회적 존립과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박물관의 특정 활동 또는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가 아닌,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인식 확산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국외의 대표적인 박물관 사회적 역할 확대의 사례인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을 통하여 국내 박물관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박물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적 역할 정립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 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개념과 정책적 함의 검토

우선적으로 박물관의 전통적 기능과 차별되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기능)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양적확장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된 ‘신박물관학(New museology)’의 개념을 통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박물관 환경이 일찍이 발달한 해외의 국가의 문화정책과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장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지원으로 이뤄지는 박물관이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위상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 나. ‘포용적 박물관’ 관점에 따른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정립

또한 이러한 사회적 역할의 실제적 구현 방법으로서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 박물관 환경을 진단하고 그 한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은 박물관이 사회의 변화에 주체, 혹은 매개체

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며(2008년 국제 네트워크인 The Inclusive museum Research Network 발족) 특정 박물관 유형이 아닌, 박물관의 활동의 사회적 의미 확산과 ‘문화적 포용성’을 높이는 개념으로서 박물관을 의미한다. 사실 ‘포용적 박물관’은 박물관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담론에서 비교적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담론이 아닌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실천의 방법론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내 박물관의 기능간의 조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점진적 차원의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장을 목표로 ‘포용적 박물관’ 개념을 연구에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다.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향 모색

이를 통해 국내 박물관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확대 방향을 모색하여 국내 박물관 환경의 미래적 모습을 구상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박물관이 ‘사회’ 속에서 새로이 역할 규정됨에 따라 박물관의 형태, 역할, 기능이 각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의되고 국지적 형태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게 되고 있는 국내외적 상황을 전제로 연구의 대상적 범위를 문화정책 범주 내에서의 “국내 공공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으로 설정하였다.

## 2. 연구 방법

박물관의 운영주체 또는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의 성격, 지역적 특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아닌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포용적 박물관과 관련된 국제동향 및 현황 등에 관한 논문, 서적, 보고서 등 문헌 분석하였다. 이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과 역할 분석을 위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문헌분석 내용과 종합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2〉 연구 방법 추진 계획

구분	관계자 심층인터뷰	관계자 자문회의
대상	국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박물관분야 실무자
인원	11명	박물관 분야 5명, 자문회의
기간	2017년 8월 말~10월 초	2017년 10월 중순~11월 초
방법	1:1 심층인터뷰	자문회의



제2장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포용적 가치’의 전개 양상**





## 제1절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전개 양상

## 1. 신박물관학의 대두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모색

박물관 또는 박물관학(Museology)영역에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한 것은 '신박물관학'(The New Museology)(Vergo, 1989)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신박물관학'은 과거의 박물관학이 박물관 행정과 재정, 보존기술과 방법 등과 같은 박물관 방법론에 집중하여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논의해야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박소현, 2011). 이 개념 등장 배경으로 과거의 문화유산의 보관공간으로 여겨진 박물관이 거대한 외형을 지닌 건물로서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 장소의 '정체성' 또는 '문화적 상징'으로 위치하게 된 1980년대 박물관 건축 붐을 꼽는데(Lumley, 1980), 박물관이 더 이상 개인 컬렉션의 확장적 의미, 또는 국가 유산의 보관소로서의 특수한 시설이 아닌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지니는 임무를 가진 공간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보았다(Lumley, 1988:1-2).

다시 말해, 기존의 역사학 또는 고고학적인 유물론에 입각하여 소장품 수집과 보존, 연구가 중점을 이루었던 박물관의 기능은 1980년대 이후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박물관학'(The New Museology)은 이러한 전환의 시기의 확장되어가는 박물관들이 더 이상 역사학과 고고학의 발현장(場)으로 위치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서 독립적 가치 찾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작용하게 되었다(김현경, 2017c) 또한 박물관을 더 이상 국가의 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사회 문화적 현상 안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매개체로서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와 박물관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Fyfe, 2006). 박물관이 ‘사회문화적 맥락’(socio-genesis of museum)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배경에 대하여 ‘유물의 가치와 의미’, ‘접근성’ 그리고 ‘정치·경제적 논리’를 중심으로 다음의 대표적 신박물관학자들의 주장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가. 가치(Value)와 의미(Meaning): 유물은 ‘박물관’이라는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적)가치와 의미가 발생된다는 관점

신박물관학자인 Harold K. Skramstad, Jr.<sup>4)</sup>는, 박물관 유물의 “가치”(Valu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물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박물관에 포함되어있는 ‘물건’으로서 부여되는 속성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유물의) 아우라(aura)’는 사회적 속성을 부여받은 표상으로서 박물관의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역할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Skramstad, Jr, 1975:180)

George Stocking, Jr.<sup>5)</sup>는 ‘가치’(Value)와 마찬가지로 (박물관 유물) ‘의미’(Meaning)는 박물관 환경에서의 ‘사물들’(objects)의 재구성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보았다(Stocking, Jr, 1985:11-12). 예를 들어 시공간의 문제를 벗어나서, 강자에 의해서 약탈되고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은 왜곡된 ‘권력의 산물’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보관된(Stocking) 유물의 소유권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사물의 의미’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슈는 비서구권 사회의 물질문화를 서구권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낭만에 도취된 이국적 상상력이 인류학과 관련된 유물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였는지를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의미’(Meaning)라는 것은 사물 자체에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4) Harold K. Skramstad, Jr는 스미소니언 역사와 기술 박물관의 전시 책임자였으며, 헨리포드 박물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미국박물관협회(AAM) 협회장을 역임하였다.

5) George W. Stocking Jr. 은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로서 독일출생의 미국에서 활동한 학자로 신박물관학과 관련하여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확장된 문화적 개념 적용한 박물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에서 결정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할당된 것'일 수 있으며 변화할 수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는 사실로서가 아닌 잠재적인 '거짓말'로 위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STAM, 1993:270).

#### 나. 접근성(Access): 박물관에서의 문화적 자본 축적과 문화적 계층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

Anthony Alan Shelton<sup>6)</sup>은 저서인 「In the lair of the monkey: notes towards a post-modernist museography」에서 박물관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적 공간의 하나로서 “공식적인 문화” 전승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 도달 할 수 있는 역량을 규범화하고, 지식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도 한다. 또한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반복적으로 그것의 핵심 내용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Pierre Bourdieu<sup>7)</sup>는 미술품에 대하여 ‘문화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만이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며, 일종의 특정 (문화적)코드를 지니진 못한 사람들의 경우 예술작품이 주는 색과 선 등에서 어떠한 리듬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Shelton, 1990:80). 또한 백화점이 친숙한 사물들을 취향에 맞게 또는 세련된 색채를 통해 전시하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준 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미술관’으로 볼 수 있다면, 박물관에서의 ‘상품가게’(뮤지엄 숍) 도입, 상품 진열과 동일한 전시방법, 일상적 물건과 예술품의 병치 등은 박물관을 지금 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박소현, 2011)

6) Anthony Alan Shelton는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 인류학과 학과장으로 박물관학 비평,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의 민속문화에 대한 다수의 연구 수행하였다.

7) Pierre Bourdieu 프랑스의 사회학자로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하였다. 저서 『구별짓기』를 통하여 문화적 자본의 여부에 따른 문화적 계층화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문화적 공간으로서 박물관을 꼽고 있다.

## 2.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전개 양상

‘신박물관학’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학계는 물론 박물관 현장, 국제박물관협회(ICOM)을 통해서 확산되어왔다. 특히 ‘신박물관학’에서 말하는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은 기존 박물관의 기능 변화는 물론 새로운 박물관의 출현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각 국가별 박물관의 발전양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나게 됨에 따라, 박물관은 초기 공공박물관이 생겨나기 시작한 19세기 초는 물론 신박물관학이 논의되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또는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그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전문 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박물관을 이용하는 방문자 또는 관람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박물관이 다뤄야하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영국의 ‘유산 박물관(Heritage Museum)’, 프랑스의 생태박물관(Ecomuseum)’ 등의 인류학과 민속학을 배경으로 한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박물관의 고유 목적과 관련한 내적의미의 사회적 기능 확대와는 달리, 박물관의 외연 확장과 관련하여 ‘박물관 현상(Museum effect)’으로 일컬은 고든 파이퍼(Gordon Fyfe)는 이와 같은 현상이 후기 산업, 후기 자본주의, 후기 모던, 포스트모던으로 특징지어진 과정과 연관되어 확대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Fyfe, 2006). 즉,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전환, 지역 경제의 변화와 중산층 계급의 확대 및 소비 사회의 발전, 그리고 고급문화와 하위문화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속에서 현대의 박물관은 디지털 네트워킹의 빠른 속도, 이미지의 빠른 흐름, 문화의 대량화, 그리고 거대한 관광지로 이루어진 대중적인 ‘관광’의 영역에서 작동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박물관의 상업화 문제와도 직결되게 되는데(Lumley, 1988) 전통

적으로 국가에서 박물관을 공적 자산으로 지원했던 영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 국가의 공공지원을 축소와 시장 주도의 경제 정책에 의해 박물관이 대형 물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게 되었다. 즉, 박물관은 스펙터클하고 수익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거나 박물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뮤지엄 숍을 설치하여 존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엔터테인먼트가 박물관의 교육 기능을 대체했으며, 박물관은 세일즈와 마케팅 전문가를 직원으로 맞이해야했다(박소현, 2011). 박물관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되어야 했으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회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위상 변화는 더 이상 박물관이 ‘공공’의 영역으로서의 국가의 지원으로만 운영되는 ‘과거’의 공간이 아닌, 정치·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하는(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현재’의 공간으로서 위치하게 하였다.

고립된 과거의 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존립에 대한 내적인 자성의 목소리(신박물관학 운동)와 외연확장에 따른 사회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인식 확대의 큰 두 개의 흐름은 그간 박물관을 공공 관리 하에 두었던 국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비영리 기관으로서 박물관이 지구책 마련의 압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공공 재원이 투입되었던 박물관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즉,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은 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박물관을 통하여 어떻게 다뤄질 수 있으며, 박물관이 어떻게 문화를 사회의 일원들에게 ‘매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20세기의 각 국가에서의 중요한 문화정책의 하나로서 ‘박물관 정책’을 발전시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통적으로 박물관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미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196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대표적 박물관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전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구체화 해보고자 한다.

###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박물관 교육’의 확장<sup>8)</sup>

19세기 공공박물관의 성립에서부터 박물관 교육적 기능은 전시 및 유물 보존의 기능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다. 최근에 들어 ‘관람객 개발’(audience development)의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어감에 따라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확장되고 있지만, 박물관에서의 ‘교육 기능’은 단순히 이러한 관람객 개발차원으로만 그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실현의 차원에서 살펴봐야한다.

미국의 박물관들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박물관 교육 차원에서 확대하고 심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즉,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박물관에 대한 일반대중의 ‘지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박물관들의 형성 배경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최초 공공박물관으로 찰스턴 박물관(Charleston Museum)의 설립 이후, 1846년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 창설 등 미국에서 주요 공공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시민 전쟁 이후인 180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다(Spiess II, 1996). 미국의 박물관 환경이 유럽과 구별되는 지점은, 소장품(collection)을 기반으로 시작된 유럽의 박물관들과는 달리 ‘박물관 개념(museum idea)’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이병준, 양지연, 2006) 즉, 소장품을 통한 유물 보존 등의 목적보다 박물관 건립자체의 목적을 중심으로 확장해나갔으며, 소장품 역시 이러한 만들어진 박물관에 하나의 의도적인 ‘사명(mission)’을 달성하기 위해 확충되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도된 사명은 바로 “교육을 통해 시민을 교양화(civilization)하는 것”(Taylor, 1975; 34)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명하에 미국의 박물관들은 현재까지 ‘일반 대중(public)에 대한 교육적 사명

8) 본 내용은 이병준, 양지연(2006)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됨

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수사로서 위치하는 것이 아닌 박물관의 사회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운영차원에서 비영리 기관으로서 박물관이 미국사회에서 존립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sup>9)</sup>.

다른 한편으로 국가 주도로 공공박물관이 설립되는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주요 박물관의 창설은 당대의 성공한 자본가들 기부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문화적 수준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고자 한 엘리트들이었다. 즉, 미국의 박물관 설립은 부를 축적한 사회적 엘리트들의 “개인적 야망과 공적 사명감의 혼재, 엘리트주의적 감상과 민주주의적 신념의 복합적인 작용”(Duncan, 1995:54)으로 박물관의 일반 시민에 대한 사회교육의 필연적 당위성을 형성해갔다고 볼 수 있다(이병준, 양지연, 2006)

이러한 초기의 설립 배경과 함께 미국에서 박물관이 특히, 교육부분의 활동이 국가의 정책적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1930~1950년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극심한 환경 변화와 위기를 겪으며 미국의 박물관들이 생존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박물관이 그 시각을 외부로 돌리고 사회에 반응하는 태도를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이병준, 양지연, 2006). 대공황 이후 민간 후원이 감소되자, 박물관 스스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연방정부는 이러한 박물관의 새로운 후원자로서 자리 잡았다. 민간 후원과 달리 공공의 재원으로 후원을 받게 된 박물관들은 과거의 엘리트들을 위한 공간에서 지역사회에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다(Spiess II, 1996).

이 시기에 많은 박물관들의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고, 어린이 등 세분화된 관객층을 겨냥한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기획되었다. 미국의 박물관들은 전쟁의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회참

9) 미국의 경우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면세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로서 박물관이 ‘교육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음(John, 2013:878)

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참여가 일시적이고, 국가 홍보의 방편이었다는 비판도 있으나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박물관 스스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국가지원에 대한 사회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전통이 이 시기부터 미국박물관에 현재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이병준, 양지연, 2006).

1960년대 국가문화예술발전법(National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Act) 제정 및 국립예술위원회(National Council on the Arts)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적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최보연, 2016:140)에 따라 박물관 역시 이러한 지원의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이병준, 양지연, 2006), 이와 함께 박물관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음을 미국 박물관협회(AAM)에서 발간한 1969년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AAM, 1969).

1980년대 이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박물관의 공적 지원과 운영 자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초기의 일반 시민의 교양 함양과 지역사회 기여 이외의 박물관을 좀 더 매력 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기능으로서 변화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앞서 살펴본 전통을 계승하고 비영리 기관으로서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꾸준히 찾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교육 등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확장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경, 2017b). 또한 ‘박물관 교육 담당자의 경력개발과 재교육’,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기술적 노하우’ 등이 박물관 행정가와 교육담당자들의 주안점으로 여겨지며(Pitman, 1999) 공교육의 질 저하와 같은 전처를 겪지 않기 위하여 박물관의 내적 인식을 통하여 박물관 교육을 통한 사회활동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박물관의 '문화매개' 역할 강조<sup>10)</sup>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화부를 설립한 국가로 문화부 설립 당시부터 문화유산 정책을 기초로 하여 문화부의 기본 틀을 설계하여 국가의 문화정책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함께 발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Council of Europe, 2015).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앙드레 말로 초기 문화부 장관의 '문화민주화'의 정신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르러 '문화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문화담론을 통하여 발전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박물관은 국가의 공공지원을 받고 '국가의 유산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이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 1980년대 이후 문화민주주의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서 '문화매개'의 개념은 박물관과 대중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Merleau-Ponty 외, 2016).

프랑스의 경우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고시 수준의 국가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며, 이 시험을 치루기 위하여 박사급에 준하는 학력이 요구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학예(연구)사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자격부여는 국가 박물관·미술관의 문화유산을 연구·보존하는 전문가로서의 박물관 인력에 대한 위상을 형성하였지만, 80년대 이후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움직임과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환경에서의 관람객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물관·미술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와 대중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담당, 홍보 담당, 대중 프로그램 담당자의 경우 수급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입장벽이 높은 고시 형태가 아닌 문화예술관련 대학을 졸업하여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대중들에게

10) 본 내용은 김연진(2017) 내의 “문화매개인력의 범위 및 역할”파트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됨

11) <http://www.inp.fr/Formation-initiale-et-continue/Formation-des-conservateurs/Actualites/Admissibilite-aux-concours-des-conservateurs-du-patrimoine-2016>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이 대신할 수 있도록 ‘매개자’(médiateur)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프랑스 박물관에서의 매개인력은 미국식의 ‘박물관 교육 전문가(educator)’에 비하여 그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볼 수 있다(Merleau-Ponty 외, 2016:13). 프랑스 박물관 매개인력은 박물관 내에서의 전문 설명가를 포함한 관련한 작품에 대한 ‘지식’ 매개적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포함한다. 프랑스 문화정책 내에서 매개자(médiateur)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해설자(interpreteur), 소통자(communiquéur) 등으로 불렀으나 ‘매개’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7년 복합문화공간으로서龐피두센터(Centre Pompidou)개관을 필두로 80년대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미술관)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은 과거 박물관이 가진 유물보관소의 형태가 아닌 관람객 기반의 프로그램 설계를 기초로 공간구성, 인력배치, 서비스 설계를 한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박물관 환경에서 속에서 관람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직무와 활동의 변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가의 대표적 문화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 이러한 박물관의 변화는 프랑스 문화정책 내에서 문화매개자의 개념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는 1980년대 자크 랑(Jack LANG) 문화부 장관이 문화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역할로서 ‘문화매개’의 개념을 문화정책에 도입<sup>13)</sup>한 이후, 문화매개자가

12) 프랑스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인龐피두 센터의 개관이 1977년에 이뤄진 이후, 오르세미술관이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현대적 미술관으로 재개관한 것이 1986년, 과학체험단지로서 과학박물관이 입지한 라빌레트 과학과 산업단지(La Cité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de la Villette)역시 1986년 개관함. 또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서 자연사 박물관이 1992년에 재개관하여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13) 민지은, 지영호(2016)는 문화민주주의 정책 기조에서 문화촉매자 역할을 담당하는 아나마퇴르(animateur)들이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활약했다면, 문화민주주의 시기에 이르러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작품과 관객이 만나는 방식 즉, 앞선 문화촉매자에 비하여 문화매개자(médiateur culturel)는 문화예술과 관객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뛰어넘어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프랑스 박물관 개정법(2002)<sup>14)</sup>인 것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의 노력은 문화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조한 매개인력과 함께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은 약 15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 문화의 상징인 루브르 박물관의 랑스(Lens) 분관 기능 구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루브르박물관은 랑스의 분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미션으로서 관람자 이상의 '대중을 위한 열린 기능'과 '지역연계 박물관'을 표방하였다.<sup>15)</sup>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프랑스의 경우 문화정책의 대표적 사업들이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루브르 박물관이 내세운 박물관의 새로운 '미션'은 박물관 환경 변화차원은 물론 국가단위 문화정책 차원에서의 영향력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관련하여 최근의 움직임으로 주목해야하는 것은 프랑스 박물관 정책 및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실행된 <21세기의 박물관의 미션과 전망> 프로젝트이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박물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를 매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21세기 국가 박물관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프랑스의 문화정책 추진의 동력으로서 박물관의 역할 제시를 목적으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문화민주주의라는 큰 차원에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프랑스 박물관 정책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관객이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재미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감상 능력을 개발시켜 향유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고 있다.

14) 2002년 개정된 프랑스 공공 박물관 관련 2002년 1월4일 법(la loi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은 국가가 관리하는 박물관에 대하여 '프랑스의 박물관(Musée de France)'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원칙과 함께 7조 '모든 프랑스 공공박물관은 방문객의 안내, 문화의 전파, 촉매와 매개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를 충족하여야 한다'

15) <http://www.louvre.fr/missions-et-projets> (2017.10월 접속기준)

#### 다. 접근성 확대 및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

영국의 경우 시민혁명을 통한 ‘왕실 유물’의 공공화 과정을 통해 공공 박물관이 성립된 프랑스와는 달리 영국의 경우 개인 기부<sup>16)</sup>와 국민들의 문화적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공공박물관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Abt, 2006:123-124). 1845년 지방정부가 미술관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령(Museum Acts of 1845)을 제정해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최종호, 2013:16), 최초로 무료 관람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되었다(Minto, 1932).

박물관 무료관람 정책은 영국 문화정책의 중요한 기조 중 하나인 ‘접근성 확대’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박물관이 직접적 수입원이 없이 국가의 지원과 후원만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료관람 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따라 그 당위성을 끊임없이 증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80년대 보수당 정부의 요구에 따라 주요 국립박물관 가운데 절반가량이 유료화 정책을 채택하게 되기도 하였다. 부분적 시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료화 정책의 추진은 국립 박물관들의 관람객 수가 40% 이상 감소함에 따라(Policy Studies Institute, 1991:70-79) 정책 추진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관람객 감소 현상과 유료화 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추진되는데 박물관 운영에 시장원리를 도입했을 때, 과포화상태의 박물관들이 한정된 관람객을 두고 경쟁을 벌여 관람객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옴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Bailey 외, 1997:363).

1997년 신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문화예술이 정부주도 공공정책의 핵심영역으로 부상하자,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뤄졌다(최보연, 2015). 이를 계기

16) ‘공공박물관’의 기원으로 알려진 애쉬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은 엘리야스 애쉬몰린(Elias Ashmole)이 자신의 컬렉션을 옥스퍼드 박물관에 기증하여 1683년 세워졌음. 당시 박물관은 10개의 컬렉션을 위한 공간과 3개의 대중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되도록 하여 대중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 최초의 공공적 성격의 박물관으로 볼 수 있음(Abt, 2006:124)

로 박물관 무료관람 정책 추진을 재 시행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99년 4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2001년 4월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관람정책 시행을 위해 공적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전면적인 무료관람정책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하에 특별부가가치세환급제도(special VAT refund scheme)을 마련하여 2001년 12월부터 국립박물관의 상설전시에 한해 무료 관람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박소현, 2010).

문화민주주의를 강조했던 신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박물관이 접근성 제고에서 더 나아가 '문화예술이 사회변화를 위한 집합적 자산(collective resource)이자 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보았다. 특히 문화예술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매개(최보연, 2015)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이끌어 갈 기구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sup>17)</sup>되었다(DCMS, 2000). 당시 영국 문화부와 잉글랜드예술위원회(ACE)는 박물관들이 구체적으로 사회적 포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해야하는 지에 대한 많은 지침들을 공표했다. 이중 DCMS가 발간한 Centres for Social Change: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for All (DCMS, 2000)은 박물관(미술관 포함)과 아카이브 사회적 배제를 해소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 추진을 위하여 박물관은 인터넷은 물론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한 접근성 개선은 물론 박물관이 외부의 다양한 기관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파트너십 구축, 대중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소장품 수집 정책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혁의 매개자(agent)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17) 영국 문화부에 따르면 지역의 박물관, 유럽 문화 수도와 같은 문화적 도시 추진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해소 할 수 있으며 특히 박물관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대중들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포럼으로 사회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DCMS, 1999;2000).

그룹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고 ‘문화적 마케팅’을 통해 이러한 기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사회적 포용의 핵심은 평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많은 박물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 보다 평등한 박물관 서비스를 창안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박물관에서 사회적 포용은 교육, 접근성, 평등한 문화 기획의 제공 등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odd, Sandell, 2001).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포용 정책에 있어 박물관은 물론 문화예술이 사회정책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포용을 위한 박물관의 활동이 그 적용에 있어 모호하다는 비판(김새미, 2017) 역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Belfore, 2006; Mason, 2004).

이와 같은 신노동당정부의 정책 추진은 정권 변화에 의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적 접근성 향상이라는 화두는 현재에도 영국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캐머런 정부의 경우 신노동당과는 달린 예술을 위한 예술의 경향(수월성 중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최보연, 2015) 박물관 정책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함께 그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김새미, 2017)<sup>18)</sup>.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공공지원의 당위성을 찾기의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발간되지 않았던 Museum review 발간 준비를 통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효과를 양적으로 가늠해보고자 시도하고 있다(DCMS, 2016).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 곳보다 적극적 의미로서의 실현되었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영국의 경우 또 다른 의미의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설정의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예를 들어 The Museum Resilience Fund의 경우 박물관의 위치, 규모로 인한 박물관 운영 격차를 줄이고 재정적 회복력을 갖추도록 ACE에서 기금을 지원을 위해 2014년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2015-2016년 2회에 걸쳐 3,000만 파운드 기금이 영국 내 202개 문화기관으로 전달되었으며, 박물관 프로그램지원, 인력 전문화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최보연, 2017:33).

## 제2절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서 ‘포용적 가치’의 확대

## 1. 박물관을 통한 ‘사회적 포용’ 정책 추진

박물관과 ‘포용적 가치’ 연계적 개념 도입의 초기 단계를 이해할 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배제 극복을 시도했던 200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국지적 현상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영국의 신 노동당을 중심으로 발전된 이 개념은 박물관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대중들이 사회적 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장(場)으로서 사회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DCMS, 2001).

이러한 영국의 신 노동당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 추진은 “예술의 도구화”라는 점(Belifore, 2006)과 문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배제’를 극복시키는가에 대한 실행방식에 있어 영국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Mason, 2004). 그 이유로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사회 전반의 정치, 경제 등과 연결되어 단순히 문화적 부분으로만 해결되거나 명확한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이와 같은 박물관을 통한 문화적 격차 해소 문제 해소 정책의 추진은 영국을 중심으로 박물관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박물관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마련하게 되었다. 즉, 영국의 ‘박물관을 통한 사회적 포용 정책 추진’은 1980년대 문화의 접근성 확대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공공지원에 대한 당위성 논의가 발생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박물관이 아닌 새로운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 차원에서 의미 있는 기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찬란한 유산 위에 군림하던 유럽의 대형 박물관들이 1980년대 이후 ‘박물관 현상’으로 불릴 만큼 양적으로 확대된 박물관들과의 경쟁은 물론 자체 재정 운영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박물관학’을 통해 스스로의 사회적 존립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찾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이 신박물관학의 논의가 북유럽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던 ‘에코뮤지엄’을 제외하고는 실체를 갖지 못하는 담론에 머무름에 따라 구체성을 띄지 못하였다.

반면, 영국에서의 ‘사회 포용적 활동’을 위한 박물관 정책은 영국이라는 국가적 범위에서는 문화정책의 부분으로서 정치적 결정에 추진 또는 폐기될 수밖에 없었지만, 국가를 넘어서 박물관의 영역에서는 신박물관학의 이론적 담론을 실제화 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책영역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박물관의 운영 전략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물관 운영의 재편에 대한 미래적 모습을 제시하는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을 등장시키게 된 것이다(Vikki McCall & Clive Gray, 2014).

살펴본 바와 같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ulsion)의 해결방안으로서 빈곤과 같은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해야한다는 논의는 더 이상 서유럽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확장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관심과 복합적 형태의 문화시설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포용적 가치’의 확산을 이끌어 내었다고 볼 수 있다.

## 2. 문화적 다양성의 실천으로서 ‘박물관의 포용성 확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포용적 가치가 박물관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영국이라는 특정 국가에서였지만,

‘문화를 통한 사회적 포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서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던 논의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획일적 서구 문화에 대한 전 세계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 ‘풍요로운 문화적 다양성’의 유지와 확대를 유지 확대를 강조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이 대두되었고, ‘문화적 포용’ 공간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하여 ICOM에서 논의가 발전되었다. 특히, 이민자 중심의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인종 혹은 종족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 보호 운동 발전에서 시작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은, ICOM의 박물관 정의에 접목되어 ‘포용적 가치’가 박물관 환경에서 확산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0년 상하이에서 열린 제25회 ICOM총회에서 발표된 ICOM Cultural Diversity Charter<sup>19)</sup>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에 대한 박물관의 사명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ICOM 2010 상하이 대회(25th General Assembly of ICOM, Shanghai, China, 2010)**

- ‘사회조화를 위한 박물관’(Museums for Social Harmony)이라는 주제로 열린 상하이 총회는 미래를 위한 환경, 문화, 경제 및 사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사회 조화 촉진을 위해 박물관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함
- 이 상하이 총회에서 ICOM Cultural Diversity Charter가 공포되었으며, 이 헌장은 박물관이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포용적이며 발전적인 접근을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박물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박물관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2008년부터 ‘포용적 박물관 연구 네트워크(The Inclusive Museum Research Network)’<sup>20)</sup>를 통해서 그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관람자(visitor)로서의 대중’, ‘박물관 활동을 위한 이해

19) ICOM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대를 위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하여 ICOM Cross Cultural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1998년 문화적 다양성 정책의 프레임 워크를 발전시켜 박물관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헌장으로서 ICOM Cultural Diversity Charter를 준비하였다

20) 2008년부터 시작된 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 박물관 전문가 및 실무자로 구성된 온라인 네트워크로서 컨퍼런스와 관련내용의 자료공유, 학술논문 발표 등을 통해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관계(자)들 간의 (협)의양상(Form of engagement)’ ‘표현의 방식과 원칙 (Modalities of Representation)’ 에 대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포용적 박물관의 활동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포용적 박물관’ 개념은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박물관의 21세기 비전으로서 ‘포용적 가치를 담은 박물관’

프랑스 문화부는 2016년 <표현의 자유와 건축, 문화유산에 관한 법률> <sup>21)</sup> 제정을 계기로 문화와 문화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미래적 가치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박물관의 경우 <21세기의 박물관의 미션과 전망> 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프랑스 박물관의 미래적 발전 전략을 수립<sup>22)</sup>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 보고서로서 「미래를 위한 박물관을 생각하다(Inventer des musées pour demain)」에서는 프랑스의 박물관의 미래의 모습을 다음의 네 가지의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 윤리적이고 시민적인 박물관 (Musée éthique et citoyen)
- 가변적인 박물관 (Musée protéiforme)
- 포용적이며 협력적 박물관(Musée inclusif et collaboratif)
- 직업적 생태계로서 박물관 환경 (Musée comme écosystème professionnel)

4개의 영역은 모두 박물관의 사회 안에서의 역할과 미래의 변화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박물관의 정체성 측면에서 ‘윤리적이고, 시민적인,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21) LOI n° 2016-925 du 7 juillet 2016 relative à la liberté de la création, à l'architecture et au patrimoine

22) 프로젝트의 책임으로 프랑스 박물관학과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담당해온 자클린 에델만 (Jacqueline Eidelman) 국립문화재연구관을 선임하였고 20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박물관 비전 수립과 미래 의제 도출을 진행하였다. 또한 8번의 지역 순회 워크숍을 통하여 각 박물관을 방문, 답사와 현장의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박물관'을 실현을 위해 '포용적 가치(valeur inclusive)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idelman, 2017:89) 박물관은 포용과 통합의 공간으로서 방문객들은 관람자인 동시에 참여자로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며,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망을 통해 이를 더욱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박물관의 '포용적 가치'의 실현이 바로 미래의 박물관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3장 ●●

#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과 적용





## 제1절

## 박물관의 활동에서 ‘포용적 가치’의 의미

## 1. 박물관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박물관은 과거에서부터 ‘문화적 기관’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이렇게 ‘문화적 기관’이었던 적은 없었다고 할 만큼 현대의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적 현상’ 들을 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하고 있다. 즉 문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이러한 ‘문화’가 사회와 깊은 관련성 맺게 됨(정체성, 디아스포라,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이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뤄지게 된 것이다(Hooper-Greenhill, 2006:362). 이에 따라 박물관에서 ‘어떤’ 문화를 담느냐의 문제는 전통과 현대 박물관의 성격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다(Mason, 2006:17).

문화이론(Cultural theory)에서 19세기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미적(혹은 예술적)행위의 결과물로서 ‘고급문화’이나 생활양식의 보편성을 띤 ‘문화’이냐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현대의 문화이론에 ‘문화’란 이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Mason, 2006:17)고 볼 수 있다. Mason에 따르면 현대 문화이론에서 ‘문화’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과거의 ‘고급’ 또는 ‘하위’문화의 경계와 구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과거에는 ‘문화가 무엇인가’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다양한 주제에서 문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화들 간의 차이’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박물관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화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그 태생에서부터 ‘문화적 기관’이었던 박물관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하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과거의 박물관은 역사와 고고학적 관점에서 ‘유물’을 중심으로

박물관을 운영했다면, 지금의 박물관은 그 형태에서 유·무형을 구분 짓지 않으며, 유·무형의 물건(object)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Davallon, 1999:9). 즉, 박물관이 더 이상 ‘과거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문화이론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발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만 이때 ‘어떤 문화’를 선택하고 ‘전달’하는 가에 대한 문제가 박물관의 숙제로 남게 된 것이다.

과거의 박물관은 어떠한 ‘것’(object)을 보여주는 가(presentation)가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진귀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으며 박물관은 ‘그것’들을 위한 공간이었다(Weil, 1999:229). 여기서 ‘그것’들은 역사의 승리자로 기억되는 자들의 물건이거나 혹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희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박물관이 ‘메시지’에 주목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미작용’을 박물관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재현하는가(representation)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이론학자인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의 ‘문화에 대한 문제화’ 의식은 박물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Manson, 2006:18)

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형태의 지배는 정당화 되어야한다고 전제했을 때, 정당성의 근원은 언제나 문화적 의미체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누가 지배하고 지배받을 것인가, 누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택되고 배제될 것인가 혹은 인정되고 거부될 것인가, 누가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자격이 있는 가 등의 문제는 그 문제가 어떤 의미, 상징, 가치에 의해서 재현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임영호, 1996). 이렇듯 재현의 문제를 통해서 사회에서의 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면, ‘문화’의 재현기관으로서 그 영역을 점차 확장해가고 있는 박물관은 사회에서의 다양한 지배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이 말하는 ‘메시지’ 역시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

를 넘어서 ‘문화’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조명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박물관학 운동의 역사적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1972년 산티아고 선언에서는 박물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박물관은 사회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그것이 속한 공동체들의 자각을 높이는 데 참여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에 봉사하는 제도이다. 박물관은 현재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틀 내에 박물관 활동을 위치 지음으로써, 즉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현재 진행 중인 구조적 변화에 참여하며 각국이 처한 현실 속에서 다른 변화들을 촉발시킴으로써, 행동하는 공동체들의 사회적 참여에 기여해야한다.”<sup>23)</sup>*

이 ‘통합적 개념’의 박물관 정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공동체 발전과 그것을 위한 공동체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정치적 지향 내에 박물관을 자리매김 하는 것이었다(박소현, 2011:229) 이러한 통합적 시각이 반영된 박물관이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포용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함을 자명함을 알 수 있다. 1984년 신박물관학 운동을 본격적으로 가시화 시킨 대표적 선언인 멕시코 오악스펙(Oaxtepec)선언(박소현, 2011:229)은 기존의 박물관의 배타성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박물관에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재현’의 문제가 중요해 짐에 따라, 기존의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유물’의 배타적 속성이 사회와 커뮤니티, 그리고 대중들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포용적 가치’를 지닌 메시지로써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또한 이 포용적 가치를 지닌 메시지들은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23) MINOM-ICOM 홈페이지 <http://www.minom-icom.net/about-us> (2017.11.26 접속 기준)



## 2. 박물관이 ‘누구’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작금의 우리에게 박물관의 활동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박물관은 사실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위한 공간이었다(Weil, 1999). 박물관에서 ‘누군가’를 위해 운영되는 기능은 교육기능 뿐이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전통이 강했던 미국만 아니라 유럽 박물관에서도 교육적 기능은 ‘예술적 경험의 확장’ 또는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의 차원에서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이었다.

1980년대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로서 박물관 건축이 큰 인기를 끌게 됨에 따라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박물관은 중립적인 장소가 아니고, 박물관의 직원들이 상상하는 평균적이고 표준화된 전형적 관람객(the typical visitor) 따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Wright, 1997:119) 라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이야기처럼(박소현, 2011:215), 이전 시대의 소수를 위한 박물관은 ‘다수’의 대중을 위한 관광지로 바뀌어갔고, 동시에 박물관을 찾는 목적 역시 ‘교육’에서 ‘방문’ 그 자체로서 관광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때에 도입된 마케팅 기법들은 박물관이 이전의 ‘예술경험 확대’의 차원보다 훨씬 많은 수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정작 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해답을 줄 수는 없었다. 즉, 박물관은 더 이상 먼지 속에 쌓인 고리타분한 ‘유물’의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곳을 찾는 ‘관람자’들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박물관만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박물관이 타 기관과 달리 줄 수 있는 것은 명확했다. ‘유물’과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감상’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으며, ‘방문’했지만 ‘감상’할 수 없는 공간으로서 박물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수 없었다. 박물관은 많은 관광객

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이는 더 많은 ‘관람자’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박물관 교육에서의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에 기초한 관람객 계층화 작업이었다(Falk, 2006). 여기서 말하는 관람객 계층화는 앞선 마케팅의 ‘타겟팅’과 비슷한 방식이었지만, 박물관만을 위한 방문객 분류라고 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이며 예술적 취향 개발’ 시킬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학습이론은 박물관을 ‘감상’하는 차원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경험’의 차이에 따라 관람객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관심은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으며 관람객 연구는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혹은 박물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진화하고 있다(Hooper-Greenhill, 2006:361).

박물관이 ‘교육’하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닌 지식을 ‘경험’하고 찾는 공간으로 변모함에 따라 박물관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 속의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박물관에 방문하여 지식을 전달받았던 사람들에게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이와 같은 박물관의 접근성 확대는 그간 박물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경험’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박물관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박물관의 사회적 책무는 교육적 목적에서 출발하여, 박물관 접근성 확대의 차원에 이르기 까지 박물관이 ‘방문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의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물관이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혜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2절

##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과 활동

1.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적 이해<sup>24)</sup>

살펴본바와 같이 박물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포용적 가치’가 적용되고 있다면, 포용적 박물관과 그 활동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까?

포용적 가치를 박물관에 적용한 ‘포용적 박물관’은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컬렉션 기반의 박물관의 정체성을 의미하지 않는다(Fleming, 2001). ‘Including’ 또는 ‘Inclusive’는 ‘~한 상태’로서의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을 규정할 수 있다. 즉, 포용적인 활동을 수행하는(포용하고 있는) 박물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서 규정되는 박물관은 그간 컬렉션에 성격에 따라 박물관을 구분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활동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이 박물관에 있어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대상으로서 ‘누구’를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공공의 지원을 기반으로 비영리 공간으로서 박물관은 ‘관람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민에서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 전체가 될 수 있다. 개별 방문객 차원에서 본다면, 포용적 박물관의 대상은 그간 ‘방문(한) 자’로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던 박물관이 박물관을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박물관 방문 경험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해서 적극적 의미의 관람객에 대한 개념 확대, 대상적 범위의 확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무엇’을 포용할 것인가? 박물관은 과거와 달리 이미 많은

24) Sandell(ed.)(2001)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됨

문화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의 정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로 통칭되는 모든 것을 박물관에서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현재의 박물관은 그 확장에 있어 방향성을 잃기 쉽다. 이러한 방향성 부재는 과거의 박물관이 그러했던 것을 관습적으로 이어 발전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경직된 역사의 틀 안에서 ‘옛’ 것에 대한 향수만을 간직한 채 박물관을 고립시켜 현재의 우리의 삶과 더욱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박물관들은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문화적 기억’<sup>25)</sup>을 담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HAAN, 2006:186). ‘기억’의 문제는 현재가 과거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규정하는 담론적 성격을 내포한다(태지호, 2013:149).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현재적 의미의 박물관 안에서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이 ‘현재’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면 박물관이 무엇을 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과거를 포함한 우리의 기억의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박물관은 전시와 교육 운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수동적 입장에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포용적 박물관에 대중(public)은 관람자로서 위치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 즉 모든 활동은 박물관-관람객의 상호 협력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포용적 박물관’의 활동은 대중-커뮤니티-사회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이와 같은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을 다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5) 태지호(2013)에 따르면 안 아스만(J.Assmann)을 통해 발전된 문화적 기억의 개념은 기억이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기억은 문자, 회화, 영상, 건축물, 제의, 기념비, 박물관 등을 통해서 유지되고 독자성을 실행해 나간다고 보았다.

26) <http://onmuseums.com/about/scope-concerns> (2017년 10월 접속 기준)

## 2. ‘포용적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sup>27)</sup>

### 가. 지역의 문화적 중추로서 역할 수행

ICOM은 “박물관은 영구적인 기관으로서 사회와 그의 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고 박물관의 역할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모든 박물관이 ‘잘’알고 있는 사실인 동시에 ‘잘’할 수 없었던 기능을 암시한다. ‘포용적 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능을 ‘지역문화의 중추로서 영구적으로 전환’된 상태를 추구한다. 다시 말해, ‘전시’와 ‘유물보존’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중추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시’와 ‘유물보존’을 할 수 있어야한다.

#### ① 유물의 수집과 컬렉션의 구성

컬렉션 수집은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가장 전문적인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컬렉션의 구성의 영역은 ‘전문 인력’인 학예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상기의 원칙을 중심으로 본다면, 컬렉션의 수집 방향도, 기존의 가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수집의 대상이 유형적 ‘유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달리 그 ‘유물’과 관련한 모든 것들이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다양화된 매체와 디지털화를 통하여 무형적 정보의 수집까지 박물관 수집 대상인 환경 속에서, ‘유형적’ 가치의 유물과 함께 ‘사회적인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컬렉션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에 수집된 유물은 ‘의미(Meaning)’ 면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재구성’된 것이다.<sup>28)</sup>” 라는 신박물관학의 주장과도 궤를 함께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27) 위 내용은 프랑스문화부에서 2017년 발간한 미래를 위한 박물관을 생각하다』(Inventer des musées pour demain)의 내용과 Sandell(2007), Colemanne(2015)을 참고하여 작성함

28) 본 보고서의 2장의 1. 신박물관학의 대두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모색에서 언급한 내용임

## ② 커뮤니티에 대한 확장적 수용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신박물관학과 함께 ‘커뮤니티형 박물관(에코 뮤지엄)’으로 논의된 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포용적 박물관에서 논의되는 ‘커뮤니티’는 상기의 토착 문화에 대한 보존 또는 전승의 의미를 넘어선다. 오히려 여기서 논의되는 ‘커뮤니티’는 내 주변의 것들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내 이웃과 주변의 다양한 연결된 서비스들, 학교와 도서관, 행정적 공간과 같은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나와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했을 때,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커뮤니티 속에서 ‘포용적 박물관’은 새로운 지식의 전달의 공간이 아닌 지식의 재발견(reconnaissance) 또는 인식전환의 장소로 나의 사회적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공동체적 장소가 된다.

## ③ 근접성(approximité)에 기초한 박물관 서비스의 재설정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기존 확장된 개념으로 ‘포용적 박물관’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접근성’에 기초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 될 것이다. ‘공공’의 목적을 지닌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에 기초로 할 때, 박물관은 관람료 정책, 박물관의 운영시간 등은 이전 보다 그 기준을 세우는 데에 수월해질 수 있다. 박물관은 지키는 사람(인력)과 박물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구분이 불분명해질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접근성’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된다. 물리적, 정서적 접근성을 감안했을 때, 커뮤니티를 통한 정서적 접근성 개선과 함께 박물관에 물리적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형태로서 ‘포용적 박물관’이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 커뮤니티와의 연계적 기능이 차등적으로 이뤄진다고 했을 때, 정서적 접근성의 해소는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조율되는 것 역시 정서적 접근성을 낮추는 ‘포용적 박물관’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포용적 가치의 구현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개방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 사회적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박물관은 ‘시설’인 동시에 하나의 ‘기관’이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역학 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다. 박물관의 학술적 기능, 교육적 기능 등 이 모든 기능은 박물관이 속해있는 단위(국가, 지역, 마을 등)를 대변하게 된다.

### ① 국가의 문화와 정체성의 가치 고양

앞서 논의된 ‘지역’의 문화적 중추로서 적용되는 박물관과 달리 ‘국립’ 박물관의 기능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사명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한다. 이 역시 포용적 박물관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의 하나이다. 포용적 박물관은 ‘어떠한 타입’의 박물관이 아닌 박물관 활동의 ‘포용적 가치’를 구현하는 박물관을 지칭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단위의 박물관이 보여줄 가치는 역사와 문화의 전승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토론의 가능성은 열려있어야 하며, 사회의 시민적 활동에 기초 한다<sup>29)</sup>.

### ② 사회적 포용 활동 확대

사회적 포용의 대상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뿐만이 아니다.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박물관의 기능을 보여줄 있어야한다. 그들을 찾아갈 수도 있으며(아웃리치사업) 그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다. 박물관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현재의 우리의 삶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될 수 있어야한다. 박물관에서 여가를 즐기고, 만남이 이뤄지고 이곳을 일상화 하여 다양한

29) 프랑스의 경우 민중의 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가 설립된 전통에 따라 “공화주의적 가치고양이 국가 박물관으로서 프랑스 박물관(Musee de France)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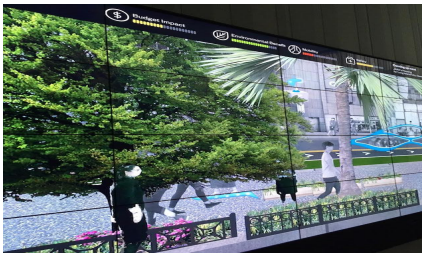
계층이 포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 ③ 협력과 참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박물관의 운영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과 박물관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전시장에 앉아서 유물을 감상하거나, 프로그램을 재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로 표현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이전보다 훨씬 더 박물관을 자신의 삶과 가까이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의 삶의 공간에 중요한 일상적 공간과의 연계된 프로그램의 운영은 박물관은 친숙한 공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다.

#### [사례: 뉴욕시 박물관(Museum of city of Newyork)]

- 뉴욕시 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로서 미래의 뉴욕시의 모습을 3D 시뮬레이션과 영상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인터랙티브 공간을 구성하였음
- Future City Lab 에는 움직이는 인구통계학적 지도 테이블과 비디오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눈은 천장부터 바닥까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즉시 그려집니다. 거대한 스크린은 대화 형 도시 계획 시뮬레이션 게임의 일부로,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에서 도시 경관을 고안하고 유토피아가 즉시 대형 스크린에 투영되는 것을 볼 수 있음
- 뉴욕시의 인구거주 현황에서부터 다양한 사회현상을 수치로 나타내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은 물론, 나의 삶과, 지역이 박물관의 가상공간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도시의 인프라를 스스로 구성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주거문제, 기후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의 배치, 교통수단의 감축, 예산 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보도록 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게임으로 구성



[그림 3-1] 자신이 투영된 도시의 모습(좌), 인구통계학 지도테이블(우)

자료: [https://creators.vice.com/en\\_uk/article/qkw7bd/redesign-new-york-city-museum-experience](https://creators.vice.com/en_uk/article/qkw7bd/redesign-new-york-city-museum-experience)



## 다. 토론과 창조의 장(場)

박물관은 유물과 관련한 ‘기록된 날짜, 지나온 세월(영속성) 그리고 현재사이에서 균형을 가져야한다. (프랑스) 유산의 본래성(originalite) 지키되 현재는 이를 보존하기 위한 복원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미래에 이것을 보존되어졌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존의 경우 ‘복원’된 부분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면, 미래의 후손들은 유물의 원본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sup>30)</sup>. 다만 우리들은 과거에 대하여 보존하되 이를 전승하기 위해 현재적 시점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어야한다.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지닐 때, 그 유물과 박물관은 진정한 영속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포용적 박물관은 ‘현재의 토론과 새로운 창조’ 동시에 발생될 수 있다.

### ①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의

박물관이 가진 다양한 이야기는 현재의 사회와 연결 지어져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물관의 유물이 현재의 우리의 기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다양한 맥락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의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다.

### ② 창조의 공간

박물관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표현과 창작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의 차원이 될 수도 있고, 현재 시점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표현과 창작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박물관은 지나간 미래로서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

30) 프랑스는 문화재 법령을 통하여 복원의 경우 복원의 흔적에 대하여 ‘읽혀져야하고’(lisibilité) 복원의 재료는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réversibilité)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제4장 ●●

**‘포용적 박물관’ 적용을 위한  
국내 박물관의 기능 진단**





## 제1절

##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검토를 위해서 앞서 연구의 범위에 서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의 박물관이 공공지원을 통해서 운영 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역할' 수행과 '공공의 역할' 수행을 동일한 차원으로 보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반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차원에서의 정책 사업과 개별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중심 사업으로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구체화하고 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국민문화향수 기회 확대 차원의 사업으로서 이뤄지고 있는 '무료화 정책'과 '개장시간 확대'(야간개장 및 휴일 없는 박물관 사업)은 각각 시간과 경제적 차원의 장벽 해소를 통한 문화 접근성 확대 또는 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별박물관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는 '사회적 기능'으로 명명된 사업은 현재 국내 박물관 조직 체계 하에서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기능들이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을 살펴볼 수 있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 취향 개발, 찾아가는 박물관과 같은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 기능 수행과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 복지' 차원의 정책 추진의 전초기지로서 박물관·미술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 현황을 크게 다음의 영역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접근성의 개선 둘째, 관객개발차원의 박물관 프로그램 확대 마지막으로 문화 복지 차원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대략적인 사업 운영 상황과 사업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박물관 정책 추진

### 가. 박물관·미술관 무료화 정책 추진과 접근성 확대의 문제

2008년 시행된 국립박물관·미술관무료 관람은 ‘국민 문화향수기회 확대’라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시범실시’ 형태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 정책 중 하나이다. 시범도입 이후 사업 운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시범실시 이후 국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총수의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박소현, 2010) 정책 목표인 ‘국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달성하는데 그 효과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무료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시범적으로 실시 되었으며<sup>31)</sup> 추진 배경으로서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적 혜택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복지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2006년 이후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국민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수용자 중심, 관람객 중심의 박물관 운영 비전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8년 이후 무료관람정책은 초기의 ‘문화복지’ 측면에서 수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관람객 증대 전략을 동반한 정책으로서 의미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소현, 2010)

반면 무료관람정책이 관람객의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데이터 추가)이나, ‘무료관람’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무료관람정책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외연의 확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31) 2002년 문화관광부(장관: 남옥진)가 8개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중산층·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를 보고하고 그 세부사항으로 ‘월 1회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입장, 공연장 관람료 50% 할인, 등’의 발표 이후 2002년 3월부터 실시되었음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었던 박물관의 다양한 관람객 개발 전략 사업-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양 확대 등-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간과됨에 따라 무료관람정책에 대한 박물관 운영주체 간 의견이 상반되게(국공립 vs 사립) 나타났으며<sup>32)</sup> 현재까지도 이러한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무료관람 정책의 정책 목표인 '국민문화향수 증진'에 어떠한 구체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정책 목표 달성이 '관람객 수 증대'라는 정량적인 지표로 단순 환산됨에 따라 수반되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라는 측면과 함께, 박물관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위상(positioning)을 갖고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지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국고의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면서도 공공과 민간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박물관들'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가에 대한 지향점 함께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많은 관람객"에 대한 유치 경쟁의 문제로서 그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박물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방문객 증가의 이면에는 분명 '무료관람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료 관람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재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박물관 프로그램의 역할 수행인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김현경, 2016a)

즉, 무료입장 정책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 비중 증가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관람객을 유치하고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박물관 환경 마련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들로 볼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실현되었을 때, 국민문화향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방문 접근성 개선 등의 거시적

32) 사립박물관의 국공립박물관의 무료관람정책이 사립박물관의 관람객 수 저하를 가져온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음(박소현, 2010)

차원의 박물관 정책 추진 사업들이 그 당위성을 획득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관람객 증대의 차원이 아닌 ‘무료관람 정책 추진’은 박물관의 내부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기능과 외부적 박물관 정책 환경 간의 유기적 연결의 관점에서 박물관 운영 생태계 차원에서의 그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나. 박물관·미술관 개장 시간 확대와 실효성 문제

박물관의 접근성 개선과 국민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대표적 정책 사업 중 하나는 박물관의 개장 시간 확대사업-야간개장 및 365일 개장이다. 야간 개장 시간 확대의 경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공립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현재 국립 박물관의 경우 매주 수요일/토요일 운영(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운영),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수/토요일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관별 차등 운영되고 있다. 휴일 없는 박물관 운영의 경우 동일한 정책 목표 하에 2016년부터 시범 추진되어 2017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체부·문화재청 소속 국립박물관·미술관 개관을 주6일에서 주7일로 변경하여 관람 시간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개장시간 확대 운영의 정책 목표 역시 박물관 무료관람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서 이는 문화기본법을 비롯하여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야간 개장의 경우 문화시설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 중 일부 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도서관과는 달리 특정서비스(도서관의 대출 및 안내)를 위한 것이 아닌 야간 시간에 문화시설을 개방하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 경험(전시 및 문화행사) 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턱 낮추기의 무료관람정책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박물관 관람 확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비교적 매우 최근 실시되고 있는 휴일 없는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경우

아직까지는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야간 개장의 경우 2007년부터 시작되어 사업 추진이 약 10년이 된 현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방문객과 이용객의 증가율로만 판단했을 때, 그 실효성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에 비하여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김현경, 2017a). 또한 현장 실무자들의 운영에 대한 예로사항 등<sup>33)</sup>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국가의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국외 관광객들의 주요관광시설로 활용됨에 따라 개장 시간 연장 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은 물론 정책 기대 효과에 대하여 관람객 증대의 문제가 박물관 운영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반면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한 관람객 양적 증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박물관 개장시간 확대 정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은 앞서 살펴본 '무료관람'보다 한층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다. 예컨대 '개장시간 확대' 사업은 동급의 타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과 동일한 예산 항목에서 지출되고 있어 예산 배분에 있어 동급의 문화시설인 도서관 실효성과 비교하여 그 예산에 대한 증가 또는 축소가 결정 될 수 있다. 반면 '박물관의 관람자'와 '도서관 방문자'의 성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박물관의 관람자'와 '박물관 관광객'은 동일한 범주에서 묶여질 수 있는가? 정책의 수혜자가 다른 상황에서 큰 범위에 '방문자 수'로만 그 실효를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것이다.

33) 김현경(2017a)은, 방문객 수 기준으로 도서관 야간운영이 박물관 야간운영보다 정책적 실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도서관 야간운영과 박물관 야간운영의 서비스 운영 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단순 비교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음. 즉, 도서관은 야간개장운영에 따른 예산을 인건비로서 지출하고 있는 반면, 박물관의 경우 야간 개장의 운영비를 임시 고용 외에 시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대민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과는 달리 박물관의 경우 시설 운영시간을 확대할 경우, 그 안에 보관되어있는 유물들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임. 즉, '이용시간 확대'의 목표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도서관의 경우는 합당하나, 박물관의 경우 이용시간 확대에 따른 관람객편의 증진과 유물관리 등을 위한 시설 관리비용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정책 목표에 맞는 예산 지출이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추가 인건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력 증원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야간 개장 시, 박물관 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2. 관람객 교육 기능의 발전과 확대

### 가. 박물관 교육과 관람객 취향 개발 문제

1909년 제실박물관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박물관은 일제 강점기 은사 기념과학관을 시작으로 박물관 교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광복 이후에도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박물관 교육이 이어졌고 한국전쟁 직후 어린이박물관학교가 경주와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박물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 국립박물관에서의 공개강좌였고, 이후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 국립민속박물관과 각 지방의 국공립박물관, 공사립 박물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교육이 활발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한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박물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한 전용 체험 공간(박물관 포함)은 약 5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기준 국공립 및 사립 기관을 포함하여 어린이 전용 전시 공간(도서관 기능포함)이 약 100여개의 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김현경, 2016b) 이 중 사립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 정도 국립과 공립은 약 60여개로 추정되는데, 어린이 체험관의 정의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어린이 체험관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 어린이회관, 과학관 등을 포함시켰을 때, 국공립 못지않게 사립기관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국내 교육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박물관이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인식수준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립지방박물관을 중심으로 낙후된 공간 개선의 목적으로서 ‘어린이 박물관’의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와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연계를 통한 어린이 이외의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서구의 박물관 역사를 통해서도 박물관이 '전시·연구' 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소명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소명이 '어린이 교육'에 집중되어 '사회문화예술교육' 또는 '평생교육'으로서의 박물관 교육이 여러 계층에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박물관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프로그램은 '유물연보존'이나 '전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박물관의 관람객 개발(audience development) 및 고객 유치 기능 중의 하나로 보았을 때 (Kawashima, 2006) 국내 박물관은 이러한 적극적 관람객 개발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체 관람자 수가 늘어나고, 어린이박물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박물관의 운영시간이 확대되고, 박물관을 특정한 목적 없이 방문하는 일회성(또는 비목적성) 관람객에 대한 수요 증가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에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박물관이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현상에서 과다한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방식보다는, '계층별 취향 개발' 차원의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박물관의 수요가 늘어나고 인식이 증가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박물관 교육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실천하기 위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어린이의 수요에 무조건 맞춤형 프로그램을 증가 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공의 목적을 지닌 박물관과 미술관이 여타의 '학습 시설' 또는 '체험시설'과의 차별성을 잃고 존립의 당위성을 스스로 내려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 시설의 경우 법적인 구분도 모호하여,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어린이공간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체험시설'의 기능으로서 그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박물관 교육의 '당위성'에 대하여 단순히 대상만의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

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문화기본법이 제정되고 국내의 문화예술환경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나아지고 그 인식도 높아진 지금의 시점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박물관 교육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문화기본법」 제 4조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3조 참고) 다양한 관람객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방문을 높일 수 있는 ‘평생교육 공간’으로서 박물관 관람객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신(新)중년이라고 불리고 있는 세대는 산업화와 경제개발의 사회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받거나 ‘경험’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국민 문화향유의 ‘니치(niche)’ 영역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교육기능을 실천할 때, 국내 박물관이 교육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기능’을 실천하고 그 역할의 사회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한 관람객 참여활동의 확대

사회기관의 봉사 및 교육기관이나 사기업의 서비스 확장에서 차용된 아웃리치개념이 박물관 교육에 도입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찾아가는 박물관’은 1990년이 시작된 이후로 국공립 박물관의 대표적인 박물관·미술관의 대표 아웃리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아웃리치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으로는 박물관 인식제고, 커뮤니티 연계를 통한 지역구성원의 사회문화교육과 더 나아가 지역문화발전의 기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다른 활동들이 대부분 ‘방문자의 참여’에 이뤄지는 것에 반하여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관람객 개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박물관’외에도 2013년부터 시작된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역시

대표적인 아웃리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현장 속의 인문학, 생활 속의 쉬운 인문학 캠페인을 통해 유물과 현장, 그리고 역사와 사람이 만나는 인문학의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2014년에는 84개관 2,872회 서 2015년에는 121개관 5,717회로 그 규모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507)

반면 이러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의 양적 확장을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찾지 않는 대상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오는 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수동적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의미와도 맞닿아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박물관은 학부모, 교사, 어린이로 구성된 각각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하여 박물관 사업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주 관람층이 어린이임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어린이의 박물관 관람을 기준으로, 어린이에 대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부모, 어린이 당사자, 그 외의 박물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 박물관 운영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운영위원회의 구성] 어린이 박물관의 주 관람층은 1차 어린이-2차 학부모를 포함한 가족동반자(성인, 유아, 고령자)-3차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사층(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임 이에 기초하여 운영위원회 역시, 어린이, 학부모, 어린이 교육 교사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 또한 박물관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러한 운영 프로그램이 박물관 교육 혹은 프로그램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하여 유물이 아닌 '활동'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어린이 박물관 서비스 제고는 물론 박물관이 적극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3. ‘문화적 복지’차원의 프로그램 제공

#### 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관습적 운영 문제

‘문화복지’라는 용어는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써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용호성, 2012)는 1980년대 ‘복지사회의 실현’을 국정 기본방향으로 정하면서 문화향유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1989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 생활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문화가 복지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6년 세계화 정책 선언 이후 삶의 질 세계화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정책을 전개하면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복지’의 성격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으나, 국내 정책 사업 중심으로 ‘문화복지’ 사업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접근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혜원, 2014)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은 이러한 국가의 문화정책의 중요한 축으로서 ‘문화복지’를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그 중에서도 개별 박물관 별로 그 명칭은 상이하나(문화나눔, 사랑나눔 등)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교육”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으나 앞서 살펴본 아웃리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의 주된 기능인 ‘전시’와 ‘유물 보존’이 아닌 관람객과 관련한 기능으로서 교육부서에서 주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문화복지에서 다뤄지고 있는 ‘소외계층’의 주된 대상은 노인, 장애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화하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계층을 대상화하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국립박물관의 경우, 2016년 기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지역의 소속박물관의 경우에도 '단체 운영'을 기본단위로 신청제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적극적 기획을 통한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문화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이 아직까지 타 국가대비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 했을 때(문화체육관광부, 2012) 부실한 프로그램 운영과 물리적 접근성이 반영되지 못한 박물관에 장애인의 방문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 소외계층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 역시 국립박물관의 운영프로그램 하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미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박물관에서의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이 어떠한 계층 군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문화다양성' 개념의 실현과 확장의 문제

2007년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후 다양한 문화다양성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이러한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은 '다문화가정' 혹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이 아닌 "차이 및 다양성의 양상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활양식에 대한 감수성을 획득하고 타 집단이나 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확대되고 있다(이운재, 2016).

2005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의 정식 명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다. 국제적으로 문화교류에 있어 약소국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e.g. 문화상품 또는 산업

의 교류 차원)것을 막고,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 위해 만들어진 보호 협약은 국내에 도입되어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관한 법률로서 법제화되었다. 유네스코 협약이 각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춰 적용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라는 명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하는 박물관의 경우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이를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소외계층 프로그램과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의 ‘다문화’ 이해 교육프로그램 등이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들은 문화적 다름을 이해하여 사회적 공존을 이해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이해와 확장을 돕는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영체험프로그램 역시, 교육프로그램이나 소외계층 프로그램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청년 남성’들에게 불가피한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존재하는 ‘병영문화’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는 일종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의 환경에서 ‘문화적 표현의 확장’을 이끌 낼 수 있는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이 단순히 교육적 목적이 아닌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 국내 박물관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 1. 조사 개요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기능은 현재 공공박물관의 직제에서 '교육 전담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고, 기관별로 그 기능과 수행의 방식이 매우 상이하여 공통적 기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관련한 정량적 데이터를 통한 현황 검토가 아닌, 박물관과 미술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근무경험이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넷째 주에서 10월 둘째 주의 약 4주 동안 경력에 따른 직무별로 약 2~3인, 총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활동이 동일하게 전개되는 바, 인터뷰 대상자 박물관 및 미술관(어린이박물관 포함)을 구분하지 않고 국공립 기관에서 종사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대상자는 다음의 표<4-1> 과 같다.

〈표 4-1〉 전문가의견조사 대상자

	소속기관	직무
관장급	국립	관장
	국립	소장(관장급)
	공립	관장
학예팀장 (중간관리자)	국립	학예팀장
	공립	학예팀장
	대학	학예실장
교육담당자 (실무자)	국립	교육담당자
	국립	교육담당자
	민간	교육담당자
	국립	교육담당자
학계	대학	교수



## 2. 조사 결과

### 가.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필요성

“박물관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적 기능을 끊임없이 요구하게 된 것은, 박물관이 더 이상 사회의 지식체계의 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박물관은 지식의 저장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박물관이 아니어도 더 많은 지식들이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나는)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박물관의) 고유성을 감성을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지식의 전달 받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찾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으로서 ‘소통’ 과 ‘공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박물관에서..” (박물관관장 A)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주변에서 편의시설이 좋다고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전에 민속박물관에서 가족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점심을 이 근처 좋은 곳에서 먹은 다음에 오후에 미술관에 와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듣는 거죠. (중략) 국립현대미술관의 위치에서, 미술관은 전체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 공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교육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로비만 지나치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렀지만,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거죠” (교육담당자 B)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박물관의 역할과 위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데에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 역할과 위상의 변화는 각 전문가 별로 영역에 따라 의견이 일치된다고 볼 수 없었으나, ‘사회적 기능’이 이전에 ‘전시 또는 유물 보존’의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

로서 위치할 수 있는 이유는,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기대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고 그 범위가 '교육'기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교육의 기능은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사회 교육이라는 것은 순수학문을 위한 교육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컬렉션만을 위한 교육도 아니고, 완전히 ‘사회’에 대한 교육만도 아니거든요. 실생활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혹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서 현재를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교육이 사회적 교육으로서 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융복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기능이 커진다고 컬렉션의 기능이 작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기획의 뿌리에는 그 박물관의 컬렉션이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늘어난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박물관의 고유기능으로서 ‘유물’의 중요성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거죠”(박물관관장 B)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사회적 교육으로서 역할을 담당할수록 더 영향력을 커질 것이라고 보았으며, 사회적 기능의 확대가 현재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삶과 접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융합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일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기능의 강화가 기존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기 보다는 ‘유물’과 ‘작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공간이 가진 ‘장소성’의 맥락이 유물로 완성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 주체의 문제

박물관은 인프라로서 위치하고 있는 동시에 문화적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경우 역사, 예술과 관련한 세부 전공을 이수한 고학력자이며, 국내 국공립 박물관의 경우 ‘학예연구사’로서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은 박물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기획인력으로서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추진, 실행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기능 수행의 주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수 언급하였는데, 특히 ‘관련 기능에 대한 박물관 조직 내의 관리자들의 중요성 인식’과 ‘박물관 실무 인력의 직무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 하였다.

“국내 박물관 환경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장(리더)의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관장님께서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구요. 사회적 기능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아무래도 박물관의 외부효과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관장님이 직접 실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학예팀장 B)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관리직(연구관 급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실무자들보다 높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고유기능으로서 전시 및 유물 보존·연구와 달리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관람객 수 증가하는 1차적인 효과 외에도 박물관이 지식을 수동적으로 ‘전달’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식의 전달 기능이 타 매체들의 발달에 따라 점차 약해짐에 따라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사회적 기능 확대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반면 이를 수행하는 박물관 실무인력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박물관 신규 진입 인력의 선발에서도 아직까지 박물관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지식'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들을 대상으로 박물관의 새로운 사회적 기능 확대에 대한 재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상적인 인식 대비, 현실적인 준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인력을 선발할 때, 면접 시에도 박물관 직무로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예연구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대부분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관련한 내용, 예를 들어 박물관학 등과 관련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업무를 진행하면서 체득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해야할지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학예팀장 A)

또한 박물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기능이 박물관교육 담당자가 ‘해야 할 일’로 인식이 되어있어 그 기능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교육 담당자 외에도 중간 관리자급인 학예팀장의 경우에도 다수의 실무자와 함께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교육을 비롯한 박물관의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전시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들은 관람객을 상대하는 일이 ‘교육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업무적으로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교육’으로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국공립, 또는 큰 규모의 박물관외에 지역의 중소 규모의 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업무 구분이 오히려

려 무의미 할 정도로 적은 인력이 전시와 교육과 관련한 모든 직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사회적 기능이 교육담당자의 몫이라고 보기 어렵죠. 인식에 대한 현실적인 온도차가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교육담당자A)

국내 박물관에서 교육기능은 물론 사회적 기능이 박물관의 주요 활동으로 여겨지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대부분 전시 또는 학예파트(연구 및 보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의 확장 조직 내에서 빠르게 적용되기 어려우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미뤄질 수밖에 없음을 한계로 꼽았다. 이러한 주요 의사결정에서 미뤄진다는 의미는, 인력의 배치와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박물관의 활동으로서 위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담당부서에서 가장 소극적인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인 임무를 개개인의 역량에 기대어 수행하고 있다는 현재 국내 박물관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의견도 조사되었다.

“저는 여러 박물관들과 작업할 기회가 많은데, 개인적으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국립민속박물관을 꼽고 싶어요. 국립민속박물관이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다양한 민속과 관련한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교육담당자 D)

사회적 기능의 경우 단번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소명의식을 지닌 전문 역량을 지닌 인력들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있어 ‘주체’들의 지속적인 업무 활동 보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 다.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 영역의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이 접근성 개선 및 관람객 편의 제공 확대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의 확장은 이러한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소통의 공간으로서 박물관을 지향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람객 편의 제공 및 교육기능은 소극적 의미의 사회적 기능의 기능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박물관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 유물의 ‘전시’기능은 관람자들에게 ‘의도된 메시지’를 관람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된 메시지’의 전달이 박물관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 수행의 영역이 될 수 있지만, 국공립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야한다.”*(박물관관장 B)

박물관은 유물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 역사가 가진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들이 전달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선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내적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회의 메시지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곡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시로서 사회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았다. 하지만, 박물관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 의미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끊임없이 생동하는 공간으로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에 대하여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어서 정의되고 있어 운영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미술관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 박물관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다루고 있는 콘텐츠가 현대예술품들은 다들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술품에 대한 내용이 곧 사회적 메시지이기 때문이죠.”(미술관교육 전문가 A)

“우리 미술관에서도 지역 내 미술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외에도 지역의 문화적 재생과 관련한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대의 치유되지 않은 상흔의 시간,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예술로서 그것을 풀어가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지역민들의 대부분도 그 장소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또는 변형’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통한 장소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학예팀장 B)

국내에서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른 전문영역 박물관에 대한 구분이 강하기 때문에, 역사 고고학을 다루고 있는 박물관들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사회와 연결된 이야기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생활사와 관련된 영역은 ‘민속박물관과 같은 영역의 박물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콘텐츠가 ‘무엇이냐’를 다루는 전문성 문제가 아니라, 그 콘텐츠를 ‘어떻게’다루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서만 사회적 기능을 다뤄야한다는 분리된 영역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박물관과 미술관이 타 기관 또는 학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생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박물관과 미술관에 오는 이유는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유물 또는 예술품’을 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 또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가 메시지가 있어야하고, 그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울 때 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더 쉽게 다갈 수 있는 것 이구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 메시지를 가진 교육적 방식의 전시도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적 방식을 차용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죠.”(교육담당자 D)

사회적 기능의 수행이 교육영역에서만 다뤄지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능이 어떠한 영역의 고유한 미션으로 만들어지기 보다는,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에 반응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전 영역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박물관이 ‘사회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학(學)’과 ‘습(習)’의 영역에서 위치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여가’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쇼핑몰에서는 그 쇼핑몰에 얼마나 시간을 머물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머물고 쉬다보면 소비도 늘어난다는 거겠죠.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내는’것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길고 어려운 역사를 배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곳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교육담당자 A)



## 라.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 대상의 문제

국내 박물관 환경에서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은 ‘어린이 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의 박물관 방문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과거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특화 박물관 건립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전반적으로 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서구권의 박물관들은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 박물관 이용에 편의제공에서 다양한 계층들의 문화적 활동 제공의 사회적 책임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박물관들은 ‘어린이’라는 특정계층의 활동에 너무 치중되어있다고 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어린이 특화 박물관’ 또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환경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사회와의 접점을 찾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수행될 수 없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교육이 이러한 문화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예술 교육 측면뿐만 아니라 큰 범위에서 박물관이 사회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교육열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나라이고 교육을 통해서 계층 사슬, 통로를 열고자 하니깐 과다 경쟁이 되고, 상대들과 협력해서 공생하기 보다는 독점, 배제 전략을 쓰려고 하죠. 이러한 과다 경쟁의 사회가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봤을 때, 포용적 박물관은 이러한 과다 경쟁의 사회에서 박물관이 해야 할 필수적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공존 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박물관이 기능을 하는 것이죠.”(박물관관장 C)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를 공공 부문에서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력도 그렇고 프로그램 수도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죠.. 내용에 대한 검토나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 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민간부분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고 사람들은 유료 서비스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죠. 공공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러한 민간 서비스와 어떻게 경쟁하겠어요.”(교육담당자 B)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의 하나의 범주로서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 창의적 교육을 제공'을 논의할 수 있으나, 그것 자체가 박물관의 주된 사회적 기능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박물관 또는 미술관 교육을 일반 교육과 동일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보았다. 박물관의 교육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생학습기관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교육의 대상 즉 연령대별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하잖아요.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 학교가 마련되어있지만, 그것이 정작 세분화되어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신(新)중년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이 박물관에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요.”(교육담당자 A)

“저는 박물관이 다른 곳하고 차별되는 사회적 통합 기능은 '세대 간 소통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대 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학예팀장 A)

박물관에서 사회적 기능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집단을 대상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다문화가정 어린이 대상' 등의 프로그램은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대상화'시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박물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지닌 '내용'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박물관 교육 역할이라고 지적하였다.

“요즘도 가끔 ‘다문화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으로 쓰인 현수막을 볼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곳도 많죠. 박물관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아이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 문화적 혜택이 ‘특정대상에게 시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학예팀장 C)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하는 대상은 문화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으로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 일치하였다.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은 충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창의교육 프로그램, 민간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예술체험 행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문화 활동 또는 문화서비스 제공에 좀 더 집중해야한다고 보았다.

“인클루시브, 인클루딩 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잖아요. Multiculturalism에서는 어떠한 것이 주도적인 문화냐가 중요했다면 Cultural diversity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이 중요한거죠. 그런 의미에서 포용적 박물관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이 되어야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분리된 어떠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죠”(미술교육전공 교수 A)

#### 마.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 방식의 문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이미 많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인식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체계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사회적 기능, 가치 등)를 만드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이런 보고서들이 하나의 정책 또는 사업화되면 다시 일반적인 얘기로 돌아가게 되요. 예를 들어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늘려라’, ‘장애인 교육을 늘려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얘기에요. 이제는 ‘소외계층의 어떤 그룹에게’ 혹은 ‘소외계층을 포괄하는 어떤 방식의 교육’을 하는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교육담당자 B)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박물관 내외부적으로 그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기관의 경우 박물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적 측면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앞선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 수행방식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사업이 강력한 추진 의지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사회적 기능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과 예산문제는 박물관 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끊임없이 제기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사회적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박물관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늘려 이를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박물관에서는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것이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스를 지닌 다른 박물관들과의

교류 활동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시,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을 통해서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박물관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기능이라고 생각해요”(박물관관장 B)

“박물관에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각 박물관이 각자의 운영여건이 다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국립-공립 연계를 하면 결국 국립 중심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중소 공립 또는 사립 박물관의 경우 국립에서 유물을 대여하거나 그들의 많은 자원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국립박물관 역시 스스로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일회성에 그치게 되는 것 같아요”(학예팀장 A)

사회적 파급력 측면에서 봤을 때, 전국을 단위로 하고 많은 문화인프라가 모여있는 수도권의 국립박물관과 지역의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 방식은 달리 진행되어야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지역성’을 발현할 수 있는 방식의 ‘커뮤니티형 박물관’이 자리 잡는 동시에 문화적 혜택의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특히 어린이 관련, 지역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은 좀 더 직접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 반면, 중앙의 국립기관의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기능 수행과 함께 다양한 박물관들이 함께 공존하고 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았다.

“지역박물관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박물관에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박물관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실행 지침을 포함한 매뉴얼을 지역 박물관에 배포했거든요. 그런 지역

에는 더 이상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교육담당자 C)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사회변화현상을 박물관에 접목시키는 활동들 역시 박물관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 중에 하나로 꼽기도 하였다.

“장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것 역시 중앙기관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도쿄과학관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2~3년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령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애 발달주기별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었는데 심리학, 노인학, 아동학 등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저러한 것이 국내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죠.”(교육담당자 A)

박물관이 실질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내부의 사람들이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 해당 박물관의 주요한 관람자군 이나, 민간 전문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그들의 의견을 실질적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박물관이 사회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관람객 참여를 기반으로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사회적 기능 확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저희는 어린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우리 박물관을 이용하는 주 관람객인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의 의견’,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의 의견, 그리고 어린이 전문가와 박물관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이를 사업계획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박물관 학예팀장 A)

## 제3절

## 국내 박물관 사회적 역할 수행 분석 시사점

앞서 우리는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이 어떠한 컬렉션을 갖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박물관으로서 '어떠한 포용적 활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포용적 활동의 대상은 박물관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들이다. 과거의 박물관이 이용하는 사람 중심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유물 보존에 가치를 두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하기 위하여 국내의 박물관들이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들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1.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가?

## 가. 사회적 역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교육' 이외의 가치정향

포용적 개념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박물관의 전통적 주요 기능이외의 '관람객 대상' 정책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이미 관람객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교육 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자체 활동으로서 교육 프로그램 외에, 박물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무료관람 정책, 개장시간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이 10년 넘게 국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책 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박물관의 교육에 대한 다수의 관람객의 관심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현재 시점의 국내 박물관이 사회적 기



능으로 불리는 ‘관람객’ 대상 정책을 기존의 연구·전시 기능만큼 확대 시행해야하는 당위성을 찾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관람객의 선호’가 박물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의 정책추진은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의 문제를 ‘관람객 선호’와 ‘관람객 증가’의 효과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 확대는 곧 교육 프로그램의 증가, 관람객 서비스의 확대 등과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와 ‘교육 기능의 확대’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라는 측면이 박물관에서 꼭 필요한 가에 대한 의견 역시 박물관이 관람객의 선호에 의해서 그 기능을 확대해야하는 가에 대한 의견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의 필요성은 대다수의 박물관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교육적 기능으로 한정지어 생각할 때,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는 한정되고 특정한 인력(교육)을 통해서 다수의 관람객을 맞이해야하는 작금의 국내 박물관 환경에서 매우 무리한 요구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또한 사회적 기능이 교육적 기능에 국한되어있을 경우 기존의 ‘전시’ ‘연구’ 기능에 대한 파생적 기능으로서 교육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 나. ‘비영리 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존속을 위한 당위성 마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박물관은 국립보다 지역 박물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박물관 경영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관람객 수와 운영 적자를 연관지어 경영 난을 호소하는 지방 공립 박물관은 물론 사립박물관이 다수이다.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이 지역 박물관에서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문제'일 수도, 혹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박물관이 애초부터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면 '비영리 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 될 수 있다. 공공성을 띤 비영리 기관에 있어 공공지원과 박물관의 재정자립도 확보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자립도 확보를 공공지원 축소의 근거로 삼고 박물관들에게 지속적인 경영 효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물관이 '비영리 기관'으로서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2.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가.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가 아닌 다양한 관람층의 프로그램 점진 확대

국내 박물관 환경은 2000년대 이후 박물관 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고, 그와 함께 박물관이 사회적 기능이 관람객 개발 차원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능의 확대가 개별 박물관들에서의 관람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질적 성장 측면에 대한 측정 및 평가도구의 부재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얻기 어려워,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 대한 참여자 수로서 그 효과성을 가늠하고 있다. 현장의 실무자들은 이러한 참여자수로 판단하는 사회적 기능의 확대가 현재의 인력구조, 예산 구조에서 더 이상 크게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10년 이상

꾸준히 박물관 인력의 확대,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공적 자금의 투입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로 구현되는 사회적 기능 확대에 대한 한계를 꼬집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 박물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방법은 공급자로서의 박물관이 프로그램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서, 프로그램 안에서 많은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나. 누가 방문하고, 누가 방문하지 않는가에 대한 탐색

이러한 다양한 관람층의 프로그램 접점 확대를 위해서는 누가 방문하고 누가 방문하지 않는 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관람객의 양적 확대를 단순히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은 ‘박물관’의 접근성 향상이 과연 국민 문화향수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실질 효과와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애초부터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관람객 정보가 단순한 인원 집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박물관 관련 통계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서구의 나라들은 이미 60년대부터 관람객 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김현경, 2016). 양적·질적 방법론의 다양한 개발과 연구는 박물관의 역할을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박물관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90년대 박물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하면서 ‘박물관 건축 붐’이 일어난 이후 부터는 박물관 ‘관람자’ 연구가 ‘방문객’ 연구로 확대되어 박물관의 전통적 기능을 인지하는 문화자본을 축적한 ‘관람자’ 외에 다양한 ‘방문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의 축적이 없고, 관람을 마치고난 이후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외에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관람객 조사가 부재하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람객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방향성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3.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가. 전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전문가들은 공적 예산 투입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박물관들의 프로그램은 큰 의미에서 공공서비스로서 기능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러한 공공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져야하며, 이를 기초로 현재의 운영 서비스들을 재검토해야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박물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시된 무료화 정책 및 운영 시간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방문의 장벽을 완화시키는 차원으로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방문의 장벽이 지난 10년간의 정책의 결과였다면, 앞으로의 박물관은 방문의 '다리'를 놓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다양하게 이뤄졌던 박물관 정책과 개별 박물관의 프로그램들은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에 충분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개별박물관의 내적 활동에서부터 박물관 간의 활동, 그리고 박물관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함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10년간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은 프로그램 이용자의 '분화'를 통해서 이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 프로그램의 발전은 다양한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박물관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계층의 경우 박물관 활동과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공 박물관 운영 인력과 예산은 이러한 모든 국민을 ‘대상’화 하여 각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이다. 이러한 예산과 인력의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국민들에게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현재 박물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 실무자들은 현재의 프로그램의 운영이 특화된 대상으로서 ‘어린이’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교에서 이뤄지지 못한 체험프로그램이 박물관에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것이 박물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몇몇의 대상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세대 통합의 ‘포용적’ 개념을 ‘예술’ 또는 ‘박물관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통합적 활동들이 박물관에서 이뤄질 때, 박물관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실질적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다.

## 나. 박물관 프로그램에서 ‘소외’ 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점검

계층 간 사회적 포용을 고려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하여 현재 박물관 프로그램에서의 ‘소외’ 대상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전통적인 소외 계층으로 여겨지는 ‘장애인’ 프로그램의 관습적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계층들은 오히려 일반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특화되어 운영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것은 공공박물관이 타 민간의 어린이 특화 시설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버세대에 대한 관심 역시 박물관이 계층 포용적 관점에서 주목해야할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 실버세대가 가진 '문화적 경험'은 해외의 실버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김진옥, 2006) 문화적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실버세대에게 박물관에서의 문화적 경험을 확대하고, 지식의 전승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박물관의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되어야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제5장 ●●

**‘포용적 박물관’ 실현을 위한  
국내 박물관 정책 방향**







## 제1절

## 박물관을 통한 사회 포용적 가치의 구현

## 1. 보조적 활동이 아닌 박물관의 중심적 활동으로서 '사회적 기능' 확대

포용적 박물관의 주된 대상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이지만, 포용적 박물관이 다루는 영역은 현재의 박물관의 모든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박물관은 전시, 교육, 연구 및 보존을 주된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용적 박물관의 국내 박물관 환경 적용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되, 각각의 기능에 '포용적 가치'를 담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포용적 가치'를 담아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박물관 전시에서 기획전시의 주제를 통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역시 '교육 이벤트'가 아닌 정례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또한 박물관의 인프라 운영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물리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능이 박물관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현재의 박물관 활동들을 재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내 박물관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컬렉션의 보존'과 이를 재현하는 과정으로서 '전시'이다.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는 것의 의미가 이러한 기존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기존의 기능 유지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 정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 정향의 중요한 축으로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즉, 한정된 범위의 방문객이 아닌 '관람객'으로서의 전 국민에 대한 문화적 포용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2. ‘방문객 유치’가 아닌 관람객의 ‘참여’로서 문화적 포용 정책 추진

포용적 박물관은 그 개념의 출발에서부터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전제로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박물관이 문화정책의 전면에서 공공성을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없으나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양적 성장과 각 박물관의 운영 노력 덕분에 박물관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 체험 및 교육기관으로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람객들에 대하여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편의 제공과 교육 기능으로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 교육 기능 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활동의 범주는 박물관 전시 연계 체험에서부터 각종 문화이벤트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박물관 운영에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박물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지루한 과거 유물의 공간에서 관람객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통한 관람객 개발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복합적 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은 끊임없는 시설투자와 박물관 전문 인력들의 비(非)전문 영역 확장에 따른 서비스 확대의 한계, 타 놀이문화 공간 등과의 차별성 확보 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결국 한정된 예산 하에서 지속적인 발전의 동력으로 한계가 있어왔다.

박물관이 어떻게 하면 다수의 관람객들에게 좀 더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움직임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문제의식 속에 다양한 시도들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공공의 지원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사회적 당위성’ 확보는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전통적 명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전통적 명제는 현재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을 통한 경영 활성화의 목표와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용적 박물관의 경우 자칫 모순되어 보이는 두 축의 문제의식이 하나로 연결되어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포용성'에 맞춰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물관에 전시를 관람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상 외에 박물관 방문이 익숙하지 않거나,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박물관으로 이끌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기존의 관람객의 방문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보다 훨씬 '많은' 이 아닌 '다양한' 관람객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통하여 전통의 전승은 물론 현재적 의미의 박물관의 '작품 또는 유물'을 경험하게 함으로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 관람객 정책'은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했던 박물관 마케팅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며, 박물관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 문화적 활동 중심으로 박물관 기능 전환

## 1. ‘시설’이 아닌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활동’에 초점

최근 국내 박물관 환경에서 ‘장소성’이 강조됨에 따라 박물관이 내부의 건물에 그치지 않고 마을이라는 외부의 공간인 동시에 그곳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의 ‘현장 박물관’, ‘에코 뮤지엄’ 등으로 확장 발전해가고 있다.

포용적 박물관은 신박물관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오픈에어형 또는 에코박물관’을 포괄하고 또한 이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에코 박물관’이 기존의 박물관의 구분을 기초로 특수한 ‘형태’의 박물관으로 위치하는 것과 달리, 포용적 박물관은 박물관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에코뮤지엄’의 개념 도입이 기존의 박물관 제도 하의 편입 상의 문제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류정아, 2015)과는 달리 ‘활동’에 초점을 둔 포용적 박물관은 이전의 박물관의 시설적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령 국내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박물관은 박물관의 운영주체 또는 등록 여부로 구분되는데, 이는 ‘시설’로서 일정 기준을 이상의 환경을 갖춘 박물관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 때문에 최근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마을 박물관, 현장박물관, 커뮤니티 박물관 등)을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류정아, 2015). 반면 이러한 포용적 박물관과 같이 ‘활동’에 초점을 두게 될 경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들에 대한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점차 확대해가는 박물관의 다양한 문화적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의 당위성 마련에 큰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문화 '보관'이 아닌 지역의 문화적 활동 중추로서의 역할 수행

다른 한편으로 컬렉션 측면에서 박물관 활동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박물관은 법적으로는 설립주체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박물관 운영에 있어 유물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크게 고고역사학계 박물관, 민속계 박물관, 테마형 박물관 그리고 '시각 미술품'을 다루는 미술관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 분포되어있는 국립 기관의 경우, 국립 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으로서 지방박물관들은 고고역사학계 박물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건립된 국립박물관으로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역사계 박물관으로서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국립 박물관 중 민속박물관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민속계 박물관이며, 국립한글박물관은 시계열적 구분이 아닌 '한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립된 박물관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기초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고 있는데, 영어 명칭인 'Museum'의 큰 틀에서 본다면 예술품을 다루는 박물관으로서 미술관도 박물관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주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공립 박물관의 경우에도 국립과는 그 사정이 비슷하지만, 국립과 같은 규모의 컬렉션을 소장하지 못한 경우 역사·고고학·민속이 모두 포괄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와 관련한 지역 내 박물관의 활동은 비단 공립 박물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립지방박물관 역시 초기의 설립 미션(고고학 유물 보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컬렉션 수집 방향을 전환하여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많은 공공 박물관이 '지역문화'라는 막연한 개념

을 통한 비슷한 주제의 고고·역사·민속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독특한 테마와 콘셉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립박물관이 오히려 다양한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립박물관들의 활동이 ‘전통적’ 기능으로서 ‘국가적 혹은 역사적 주요 유물의 보존’이라는 박물관의 기능과 상치된다고 보는 견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박물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이러한 문화적 중추로서의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논함에 있어 사립박물관들의 행보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국공립박물관이 주력하고 있는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비판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박물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역 문화’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 의미까지 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지금이 박물관들이 이러한 ‘활동’으로서 ‘지역문화’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활동으로서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는 ‘박물관’은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적 중추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고 지역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운영 주체별, 해당 박물관이 포괄하고 있는 지역적 범위(국가단위, 지역단위, 커뮤니티 단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지역단위나 커뮤니티 단위에서는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 활동의 중추라고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 참여와 교류의 공간으로서 박물관 운영

## 1. 문화적 리터러시로서 '박물관 리터러시' 확산

초기 미국에서의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던 '문화적 리터러시'는 '미국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미국인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공유하는 문학과 역사, 전통과 같은 공통된 지식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반영하는 단어였다(전경란, 2015). 국내 박물관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확대와 이에 대한 박물관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한국에 대한 교육, 혹은 한국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물을 활용한 역사 교육은 국내 박물관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하여 좀 더 확장된 범위의 '문화적 리터러시 개념'에서 박물관을 이해하고 '박물관 리터러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확장된 범위에서의 문화적 리터러시라 함은 '국가의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삶의 방식으로 문화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공유해야 하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Provenzo, 2005). 이러한 개념 하에 '박물관 리터러시'는 박물관을 하나의 '매개체(media)'로 간주하여 당대의 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박물관을 매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그 사회문화적 효과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확장된 의미의 문화적 리터러시 관점에서 박물관은 유물을 보존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등의 기능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생각과 지식의 소통의 통로로서 지식을 학습하는 시키는 것이 아닌, 문화현상에 대한 다양한 신념, 철학 등에 관한 깊은 층위의 지식 내부의 모순이나 역설에 관한 이해까지 함양하는 공간으로 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리터러시 형성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박물관을 자주 ‘방문’만 한다고 해서 이러한 리터러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경험적으로 익숙한 것이 반드시 높은 리터러시를 갖게 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전경란, 2015). 국내 어린이 박물관이 확산되는 기저에는 ‘어릴 적부터 박물관 경험 또는 문화예술경험에 자주 노출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성인기의 문화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을 전제로 하지만, 수동적 교육으로서 어린이 대상 교육이 자발적 차원의 청소년 박물관 방문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박물관이 하나의 ‘미디어’로서 공유된 지식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과 표현 욕구를 실현하는 동시에,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 형성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시킬 수 있는 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학습자를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의 리터러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전경란, 2015). 또한 이러한 박물관 리터러시의 함양은 개인의 사회문화적 이해의 확장은 물론, 하나의 국가적 개념이 아닌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집단에 대한 맥락을 수용하고 확장시켜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박물관 전문 인력의 소통 역량 확대

이러한 ‘문화적 미디어’로서 박물관 리터러시를 기획하는 역할은 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물관 전문 인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도서관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연구 직렬로서 자리 잡은 박물관 학예사의 경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박물관 운영자로서의 역량을 두루 갖추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박물관 운영자로서의 역량이 바로 앞서 말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한 관람객과의 소통 역량이다. 박물관은 그 설립 초기부터 연구기관인 동시에 ‘유물’을 통하여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

이었고, 이러한 전달자로서 박물관 인력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박물관이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식 '탐색'의 공간으로 변해감에 따라 박물관의 지식 전달자였던 학예사들도 그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 학예사들은 분야의 전문가인 동시에 박물관의 운영인력으로서 관람객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관람객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교육 담당자'들의 몫이 아닌,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소통'하기 위해서 전시, 교육, 보존 영역의 모든 전문가들이 고민해야하는 시점인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박물관 인력들은 이러한 지식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매우 열악한 직무환경에 놓여있다. 박물관 인력이 되기 이전에 쌓은 전문지식 이후에,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가 많지 않고(김연진, 2017)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요구하는 관람자들과의 소통 방법 이해가 높지 못해 박물관에서 점차 확대 되고 있는 '소통' 또는 '교육' 기능들이 한정된 교육 인력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교육 인력역시 한정된 인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관람 계층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어린이 중심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박물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의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구체적 실현과 방식에 대한 인식 공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이 '전문가'로 남는 것이 아닌 전문적 지식을 '소통'하고 '매개'할 수 있는 인력<sup>34)</sup>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4) Backer2013:127)는 '문화유산'을 위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차원에서 박물관인력이 가져야하는 소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①컬렉션에 대한 충분한 지식②문화에 대한 센스와 높은 관심③교육적 체험을 즐겁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경험으로 승화할 수 있는 열정 ④비평적 사고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⑤전달되는 교육과정과 그 안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지식에 대한 충분한 숙지⑥단체 내에서 교육을 매개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⑦다양한 교육 기술을 통해 수강자(학습자)들의 기분과 반응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⑧교육 성과에 대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과정상, 결과상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역량



## 제6장 ●●

### 결론





국내 박물관은 90년대 중반 이후 국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양적으로 성장해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박물관 환경에 대한 확대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박물관의 난립에 따른 운영의 문제들을 양산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영의 문제를 타진하기 위하여 국내 박물관은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경영 효율화, 교육적 기능의 강조를 통한 관람객 개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사업들의 중심에는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방문이 국민들의 문화적 향수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적인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의 방문이라는 양적인 목표에 기대어 이러한 고민이 간과되어왔다.

다시 말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생산된 여타의 인프라와는 달리 국가의 정책적 대상으로서 국가의 유물을 보호하고, 국민들에게 문화 향수를 높이기 위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 향수 증진이 점차 경제적 논리,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오용됨에 따라 박물관의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유물을 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박물관의 설립 이전에 유물 수집 혹은 보존 계획부터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이러한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박물관 건립 또는 운영이 인프라 확대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국가의 평가 등에도 불구하고 ‘수단적’ 의미의 무분별한 건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수단적 활용이 아닌 박물관이 지향해야 하는 ‘공공성’의 실현의 방식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중요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에서 박물관은 이미 ‘사회적 공간’ 혹은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는 ‘공간’은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장소의

개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확대된 의미로서의 공간이다. 즉 박물관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능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으로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이러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추구해야할 방향성으로서 '포용적 박물관'으로 설정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았다.

포용적 박물관은 박물관학 측면에서 '신박물관(New museology)'이 후에 등장하고 있는 박물관 활동이 지향해야하는 바를 '포용적 가치'에 두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박물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포용적 가치는 작게는 박물관이 이를 이용하는 대상 '관람객'에 대한 포용성을 높여야한다는 것에서 시작하여 더 나아가 박물관이 본래 가진 고유의 역할 '유물의 보존 및 전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까지 다루는 넓은 범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적성장에 이은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국내 박물관의 현재의 시점에서 '포용적 가치'의 적용을 통해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내에서 박물관은 이미 '문화적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인식은 자리 잡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자칫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박물관이 가진 '공공성'을 퇴색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 내에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박물관이 가진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의 방법을 통한 '포용적 가치'의 실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용적 가치의 실현은 우리보다 앞서 박물관 환경을 구축한 해외의 국가의 박물관에서도 21세기의 박물관 운영의 방향성으로도 제시

하고 있는 바임을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국가의 중요한 사회적 교육 기관으로서 자리 잡은 미국, 박물관이 지식과 문화의 매개 공간으로 활용되는 프랑스, 박물관이 적극적 사회 포용정책으로서 문화적 격차 해소와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영국의 박물관 정책 등의 시도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던 박물관 정책이 문화정책 혹은 사회 정책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례 및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의 발전 양상으로서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그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사회적 공간으로서 박물관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여주며, 다른 방식으로 재현된다. 유물을 보존하고 이를 전시하는 행위의 장이면서 동시에 이를 관람객에게 매개하는 공간이다. 이에 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박물관 인력의 문제, 관람객의 수용의 문제, 그리고 이를 재현하는 방식의 문제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환경정비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공통된 가치지향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박물관 운영 환경은 물론 관람객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포용적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국내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 국내 적용의 영역을 명확히 하지 못하여 박물관 운영의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있는 연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박물관의 질적 성장에 대하여 단편적 사례가 아닌,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서 ‘포용적 가치’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차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국내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 확대의 방향으로서 ‘포용적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서울: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김새미(2017), 영국 문화정책에서 나타난 다양성(diversity)과 우수성(excellence)의 문제, 「EU연구」 46호, 133-176
- 김연진(2017),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김진옥(2004),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vol. 32, 149-177
- 김현경(2016a),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재방문을 및 계층 분석을 위한 시범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경(2016b), 「용산공원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경(2017a), 「KCTI 정책레포트-국립 박물관 및 도서관 야간개장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경(2017b), 「KCTI 정책레포트-‘고령 친화(Ageing-friendly)’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탐색」,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경(2017c), 한국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찰, 「제11회 한국박물관 국제학술대회-박물관과 논란의 역사」, 제11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2017.05.20.), 133-151
- 민지은, 지영호 (2016). 문화매개자의 개념과 양성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Vol.37, 185-210
- 박소현(2010),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소현(2011),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 Vol.29, No.1, 211-237
- 박소현(2012),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기초조사 연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설규주(2013)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제2회 문화다양성교육 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이병준, 양지연(2006), 박물관교육의 철학과 실천모형에 대한 역사적 연구-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 20집, 135-170
- 이운재(2016), 교구재를 활용한 어린이박물관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연구-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교육연구」Vol.15·16, 101-116
- 전경란(2015),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 최보연(2015), 창의교육에서 문화교육으로: 영국 신노동당 및 보수·자민당 연합 정부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비판적 고찰, 「문화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53-96
- 최보연(2016),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보연(2017), 「KCTI 정책리포트-영국문화정책백서 심층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2014) 단계적 분석을 통한 문화복지정책의 효과, 「2014년 한국문화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자료」
- 양현미(2013),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 27집, 135-169.
- 윤태석, 이미영(2010), 뮤지엄 평가 현황을 통한 제도 도입방안 연구, 「韓國造形教育學會」Vol.36, 243-274
- 용호성(2012) 문화바우처 정책의 쟁점과 전망, 「문화정책논총」, 26(1): 99-124
- 태지호(2013), <독립기념관>에 나타난 ‘독립’의 기억과 그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Vol.25, 145-177

- ABT, Jeffrey(2006), "The origins of the public museum", Saron Madonald(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1969) *America's Museums: The Belmont Report*.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 AMES, Michael M.(1990), "Cultural Empowerment and Museums: Opening Up Anthoropology Through Colaboration", *Objects of Knowledge, New Research in Museum Studies 1*, London and Atlantic Highlands: The Athlone Press
- BAILEY,S., FALCONER,P., FOLEY,M., MCPHERSON,G.&GRAHAM,M.(1997),Charging for Admission to Museums and Galleries:Arguments and Evidence,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16:4, 355-369
- BAKER,K.,(2013), *Information literacy and cultural heritage-Developing a model for lifelong learning*, UK:Chandos Publishing Hexagon house
- BELFIORE, E. (2006), "The social impacts of the arts - myth or reality?", Mirza, M., ed.(2006). *Culture Vultures : is UK arts policy damaging the arts?*. London : Policy Exchange Limited.
- BOURDIEU,P.(2005), 「구별짓기」, 최종철(번역), 서울: 새물결(원저 출판연도 1979)
- COLEMAN,L.E.(2015), The Socially Inclusive Museum: A Typology Reimagine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Inclusive Museum*
- Council of Europe/ERICarts(2015), *Compendium of Cultural Policies and Trends in Europe*(16th edition),
- DAVALLON,J.(1999), *L'exposition a l'oeuvre*, Paris:L'Harmattan Communication
- DCMS(2000), 「Centres for social change: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for all」, London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2016), 「Cultural White Paper」, London:DCMS
- DODD,J.and SANDELL,R.(ed.)(2001), *Including Museums-perspectives*

- on museums, galleries and social inclusion*, Leicester: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University of Leicester
- EIDELMAN, J.(Dir.)(2017), *Inventer des musées pour demain – Rapport de la mission Musées du XXIe siècle*, La Documentation française
- FLEMING, D(2001), “Positioning the museum for social inclusion”, SANDELL, R.(ed.), *Museums, Society, Inequality*,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HALL, S.(1996),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임영호(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203-232), 서울 : 한나래출판사(원저 출판연도 1980)
- HAAN,R.Beier-de(2006), “Re-staging Histories and Identities”, Saron Madonald(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OXFORD:Blackwell Publishing Ltd.
- HOOPEr-GREENHILL,E.(2006), “Studying Visitors”, Saron Madonald(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OXFORD:Blackwell Publishing Ltd.
- JOHN, Leila(2013), Museums and the Tax Collector: The Tax Treatment of Museums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Business*, Vol.15, 877-920
- KAWASHIMA, N.(2006), Audience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in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2:1,55-72
- LUMLEY, Robert(1988), “Introduction”, Robert lubley(ed.), *The Museum Time-machine: Putting cultures on displa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ACALL,V.& GRAY,C(2014), Museums and the "New Museology": Theory, Practice and Organisational Change,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9, 19-35
- MASON,R.(2004) Conflict and Complement: An Exploration of the Discourses Informing the Concept of the Socially Inclusive Museum

- in Contemporary Britai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0:1, 49-73
- MASON, R. (2006), "Cultural Theory and Museum Studies", Saron Madonald(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 MERLEAU-PONTY, C., DAVALLON, J., CAILLET, E. (2016), "IL ETAIT UNE FOIS..", F. Serain, P. Chazottes, F. Vaysse, E. Caillet(dir.), *La Mediation Culturelle: cinquieme roue du carrosse?*, Paris: L'Harmattan
- MINTO, J. (1932), *History of the Public Library Movement in Great Britain and Ireland*, London: Library Association
- POLICY STUDIES INSTITUTE (1991), "Attendances at museums and galleries", *Cultural Trends* 12, 3(4), ed. Eckstein, J. and Fesit, A.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 PROVENZO, E. F. Jr. (2005). *Critical literacy: What everyone ought to know*. Boulder: Paradigm Publishers.
- SANDELL, R. (2001), *Museums, Society, Inequal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HELTON, Anthony Alan (1990), "In the Lair of the Monkey: Notes Towards a Post-Modernist Museography", *Objects of Knowledge, New Research in Museum Studies* 1, London and Atlantic Highlands: The Athlone Press
- SKRAMSTRAD, Jr., Harold K. (1975), "Interpreting Material Culture: A View from the Other Side of the Class". Ian M. G. Quimby(ed.) *Material Culture and the Study of American Life*,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and CO., 1975
- STAM, Deindre. C. (1993), The informed muse: The implications of 'the new museology' for museum practice,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12, 267-283

- STOCKING, Jr., George W(1985)., “Essays i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  
George W. STOCKING, Jr(ed.), *Objects and others: Essays in  
Museums and Material Culture*, Madison WI: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VERGO, P.(ed.)(1997), *The New Museology*, London: Reaktion
- WEIL, Stephen E(1999), *From being about something to being for  
somebody: The ongoing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museum*,  
Daedalus
- WRIGHT, P(1997), “The Quality of Visitors’ Experiences in Art Museums”,  
VERGO, P.(ed.), *The New Museology*, London: Reaktion

〈참고 URL〉

- 포용적 박물관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onmuseums.com>
- 프랑스 국립문화유산학교 홈페이지 <http://www.inp.fr/>
-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louvre.fr/>
- E-나라지표, 등록박물관/미술관 현황(2017.11.26. 접속기준)
- MINOM-ICOM 홈페이지 <http://www.minom-icom.net/>

## ABSTRACT

### A Study on Policy for the enhancement of Social role of Korean Museums

KIM Hyun-Kyung

In this study, the aim of the museum wa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the museum's social function as a means of realizing the meaning of the museum, which is not meant to be used by museums. In this regard, the aim of the domestic museum was to enhance the social role of the museum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inclusive values” in the present time,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qualitative growth.

In Korea, the museum has already established its role as a ‘cultural institution’, but there is a variety of attempts to see how it can be implemented. However, the process of embodying the ‘service’ for visitors could result in a withering of the ‘Publicity’ in the museum. That is why the realization of “inclusive value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when it comes to bridging the cultural gap within the society and sharing various knowledge of the museum.

The realization of such inclusive values was reflected in the research of museums in museums in the 21st century, where museums of the past were also presented in the museum. The museum policy, which is regarded as an important part of the country's importance as a social and cultural institution, and a museum in which museums and museums can contribute to the social inclusion of cultural and social sciences as a whole, will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would

not be discussed in Korea.

The report was intend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xpanding the social functions of the museum through the concept of “embracing the concept of the museum”, but it has not been clarified in the context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 museum in the context of the advancement of the domestic environment. Still, it seems to be meaningful that, as a result of the growing demand for museum quality, the emphasis on the quality of the museum was not fragmentary, but rather as a social role, as a result of the pursuit of a social role in the quality of the museum.

The museum is expected to expand its demands for social role. Further, we hope that future follow-up measures will be presented in a practical and detailed manner in which the domestic museum will be able to implement the “inclusive values”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social role





## 참여 연구진

### 연구책임

김 현 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

최 혜 경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 방안 연구 -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을 중심으로 -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7년 11월

발 행 일 2017년 11월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SBN : 978-89-6035-694-8 93300

[www.kcti.re.kr](http://www.kcti.re.kr)

